

제10장 천북면(川北面)

본래 홍주군(洪州郡) 용천면(用川面) 지역인데, 충청수영(忠淸水營)이 폐영되고 그곳에 오천군(鰲川郡)이 신설되면서 1901년 5월 오천군(鰲川郡)에 편입되었다. 오천(鰲川)의 바다 건너 북쪽이 되므로 천북면(川北面)이라 하여 상신(上新), 하신(下新), 명곡(明谷), 수곡(水谷) 소덕(小德), 웅천(熊川), 덕두(德頭), 언내(堰內), 천파(川巴), 구봉(九峯), 죽현(竹峴), 농현(農峴), 신촌(新村), 낙서(洛西), 작현(鵲峴), 구동(九洞), 동막(東幕), 당현(唐峴), 심박(深朴), 본궁(本宮), 송현(松峴), 빙도(氷島), 화곡(禾谷), 삽포(插浦), 오만(五晩), 천궁(川弓), 금과(金坡), 온천(溫泉), 종지(宗芝), 은포(隱浦), 수철(水鐵), 장곶(長串), 매향(梅香), 봉하(峯下), 밀포(密浦), 아포(牙浦), 어망(魚網), 하궁(河宮), 종평(宗坪), 주항(酒缸), 동산(東山), 각음(各音), 두만(斗滿), 원동(院洞), 사정(沙汀), 상판(上板), 하판(下板), 열호(烈湖), 명포(明浦), 통포(桶浦), 사기점(沙器店), 봉상(峯上), 하선(下仙), 염성(鹽城), 중랑(中郎), 오학(五鶴), 오룡(五龍), 혜독(惠篤), 호변(湖邊), 울도(栗島)의 61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군면(郡面) 폐합에 따라 결성군(結城郡) 가산면(加山面)의 죽현(竹峴), 농현(農峴), 염리(鹽里), 신리(新里), 마촌(馬村), 점촌(店村)의 6개 리를 병합하여 다시 천북면(川北面)으로 하여 보령군에 편입하였고, 신덕(新德), 신죽(新竹), 낙동(洛東), 궁포(弓浦), 장은(長隱), 하만(下滿), 사호(沙湖), 학성(鶴城)의 8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과거에는 광천을 통하여 보령시의 다른 지역과 연결되었으나, 홍보지구 농업개발사업으로 오천과 연결되는 제방이 완공되어 보령과 직접 연결된다.

1. 궁포리(弓浦里)

본래 홍주군(洪州郡)의 지역인데, 고종 광무 5년(1901)에 오천군(鰲川郡) 천북면(川北面)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삽포동(插浦洞), 오만동(五晩洞), 천궁리(川弓里), 금과동(金坡洞), 온천동(溫泉洞), 종지동(宗芝洞) 일부를 병합하여 천궁(川弓)과 삽포(插浦)의 이름을 따서 궁포리라 하여 보령군 천북면에 편입되었다.

- 가나무서낭 : 삼개 예순다랭이골에서 작은오마니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다. 신수(神樹)로 벗나무가 있었고 돌무더기가 있다.
- 가슴골 : 맹이저수지 제방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가장골 : 금과동 윗말 남쪽의 골짜기.
- 감뿌리 : 큰오마니 동북쪽, 장구섬의 남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
- 뽕낭골 : 큰오마니 남쪽에 있는 골짜기. 속담의 남쪽이다.
- 뽕낭골고개 : 장은리 맹이에서 큰오마니로 넘어오는 고개. 고염나무골 고개라는 뜻이다.
- 구간사지 : 작은오마니 북쪽에 있는 옛 간척지.
- 구뚝 : 삼개 마을 안에 있는 옛 간척지의 뚝.
- 궁논들 : 큰오마니 앞에 있는 들.
- 금점골 : 금과동 원적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금을 캐던 곳이다.
- 금촌 : 천궁 마을의 다른 이름.
- 금과동(金坡洞) : 궁포리의 동쪽에 있는 마을. 윗말, 아랫말, 쇠편으로 구분된다.
- 금과동(金坡洞,쇠판리) : 궁포리 ‘금과’ <1911, 朝鮮地誌資料>
- 긴골 : 금과동 아랫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나룻개골 : 나룻개 간사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누에머리 : 작은오마니 북쪽, 과원안 동쪽에 내민 산줄기. 누에의 머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당산 : 큰오마니 서남쪽에 있는 산. 장은리와 경계이다. 높이 95.5m이다. 당집은 없고 당제를 지내던 터만 남아있다고 한다.
- 당재 ; 천궁 마을 서북쪽에 있는 낮은 산(50.3m). 당집은 없으나 옛날에 당제를 지냈다고 전한다.
- 돌부리 : 천궁 마을 북쪽, 절골의 동북쪽 끝. 오성간사지 옆이다.
- 뒀공지 : 천궁 마을에서 맹이 북쪽 주낙골로 넘어가는 고개.
- 두름산 : 삼개와 나룻개 사이에 있는 산. 학이 나와 피학골로 피했다고 한다.
- 뒷동산 : 천궁 당재의 북쪽 봉우리.
- 뒷산 : 금과동 윗말의 동남쪽 산.
- 판봉 : 차돌백이에서 천궁으로 들어오는 위골의 동쪽 산봉우리.
- 만석골 : 삼개 읍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이 들어서 있다.
- 매봉재 : 삼개 읍지 동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66.7m이다.

- 매채나무 : 천궁 마을 남쪽 산기슭에 있는 나무이다. 옛날 배가 들어올 때 배를 묶어 두던 나무라고 전한다. 주민들은 박달나무라고 말하나 확실하지 않다.
- 맹이저수지 : 장은리 맹이 북동쪽에 있는 저수지. 저수지는 궁포리 구역에 있다.
- 메라지 : 금과 아랫말 북쪽에 있는 작은 골. 낙동리와 의 경계 지역이다.
- 목고개 : 큰오마니 동북쪽 장구섬의 목을 지나는 고개.
- 바라지 : 삽개 북쪽 옛 간척지의 수문. 두름산 밑에 있다.
- 벗도러 : 삽개 동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은적골의 동북쪽이다. 집이 한 채 있었다. 골짜기 앞에 소금을 굽던 곳(벗)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벗터 : 삽개 동북쪽 끝에 있는 옛 소금 굽던 곳. 간척지 제방의 안쪽이다.
- 부랑당골 : 큰오마니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과학골의 동쪽이다.
- 불탄지 : 삽개 양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에 집을 지으면 불이 난다고 전한다.
- 불탄지고개 : 삽개 양지 남쪽 불탄지골에서 장은리 무시점으로 넘어가는 고개.
- 붉은이마 : 금과동 윗말 뒷산의 남쪽 부분. 천북면 소재지로 통하는 도로가 지남.
- 사당골 : 삽개 양지 마을과 불탄지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일제 시대 말기까지 금광이 있어 금을 캐던 곳이다. 금광석은 장항제련소로 가져갔다고 한다.
- 사신마골 : 삽개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진고개의 서쪽이다.
- 사캐뿌리 : 궁포리 서북쪽 끝. 장은리와 의 경계 지역에 있는 산줄기의 끝.
- 사타랭이고개 : 삽개 사신마골에서 나룻개로 넘어가는 고개. 과거에 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산제쌈 : 천궁 마을 남쪽 들 가운데 있던, 산제 지낼 때 사용하던 쌈이다.
- 살감뿌리 : 천궁 마을 북쪽 산줄기의 끝.
- 삽개 : 궁포리 북쪽에 있는 마을. 양지와 음지로 구분된다.
- 삽포동(插浦洞) : 삽개의 한자 표기.
- 새논안 : 큰오마니의 동쪽, 장구섬 서남쪽에 있는 작은 들.
- 새뚝 : 삽개 마을 앞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개울. 천정천이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 서낭댕이 : 금과 아랫말과 낙동리 사이에 있는 성황당.
- 서낭댕이 : 삽개 예순다랭이골에서 작은 오마니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가나무서낭을 말함.
- 서낭댕이 : 솔고개에 있었는데, 신수(神樹)는 벗나무였다.
- 서편골 : 금과동의 서쪽 골짜기.
- 성호나무 : 궁포리 북쪽 끝에서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버그내로 건너가는 나무.

천북면 주민들이 결성장을 보러 다니던 큰 나루이다.

- 성호진(星湖津) : 천북면 궁포리 나룻개에서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로 통하는 나루
〈1911, 朝鮮地誌資料〉
- 속덤 : 큰오마니와 킴낭굴 사이에 있는 낮은 언덕.
- 솔고개 : 장은리에서 삼개로 들어서는 큰 도로가 지나는 고개. 성황당이 있었다.
- 쇠편 : 금과동의 서쪽 마을. 금점골의 북쪽이다. 이곳 샘에서 따뜻한 물이 나와 온천동이라고도 불린다.
- 아랫말 : 금과동의 북쪽 부분.
- 안삭굴 : 만석굴의 다른 이름.
- 안산 : 금과동 윗말과 원적굴 사이에 있는 산. 높이 40.0m이다.
- 알미고랑 : 천궁 마을 북쪽, 정자나무 너머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앞말랭 : 천궁 당재의 남쪽 봉우리.
- 양지 : 삼개 마을의 서쪽 부분.
- 여섯분산 : 큰오마니 마을 동쪽에 내민 산. 여섯 사람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영만이골 : 나룻개 간사지 서쪽, 작은 간척지가 있는 골짜기.
- 예순다랭이고랑 : 솔고개 북동쪽에 있는 긴 골짜기. 작은 논이 많아 붙여진 이름.
- 오댓굴 : 큰오마니 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북쪽으로 나 있는 고개이다.
- 오마니 : 궁포리 중간에 있는 마을. 삼개와 천궁 사이에 있다. 큰오마니와 작은오마니로 구분된다.
- 오만동(五晩洞) : 오만의 한자 표기.
- 오성간사지 : 궁포리와 학성리에 걸쳐 만들어진 큰 간척지. 1960년대 유솜(USOM, 미국대의원조처)의 원조로 윤상원, 한상천, 한인수, 김재성, 김필환 등이 막았다고 한다.
- 온천동(溫泉洞) : 금과동의 서쪽 부분. 쇠편의 다른 이름. 샘에서 따뜻한 물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911년 조선지지자료에 기재된 지명이다.
- 옷나무굴 : 삼개 읍지 마을의 남쪽, 작은 방죽이 있는 곳을 칭하는 이름.
- 원논 : 큰오마니 동쪽에 있는 들. 원래의 간척지로 오댓굴의 남동쪽이다.
- 원뚝 : 삼개 마을 북쪽 간척지의 둑. 1960년대 초 개인이 막았다고 한다.
- 원적굴 : 은적굴의 다른 이름. 옛날 이곳에 절이 있어 원절골이라고 부르다가 원적굴로 부른다고 한다.
- 윗골 : 차돌백이에서 천궁으로 들어오는 골짜기.

- 윗말 : 금과동의 남쪽 부분.
- 유두께 : 맹이저수지 제방 부분의 옛 이름.
- 은적굴고랑 : 샅개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집이 1채 있었으나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다. 골짜기 안에 두어 아름이나 되는 큰 배나무가 있다.
- 읍지 : 샅개 마을의 동쪽 부분.
- 작은오마니 : 오마니 마을의 북쪽 부분. 큰오마니와 산줄기로 나뉘어 있다.
- 장구섬 : 큰오마니 동북쪽에 있는 섬처럼 생긴 지형. 목고개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현재는 섬 밖이 모두 간척지가 되었다.
- 장승백이 : 천궁 마을에서 초분골로 가는 길가에 있었다. 노인들도 장승을 보지는 못했다고 하므로 아주 오래 전에 없어진 듯하다.
- 절굴 : 절굴골랑 안에 있는 작은 마을.
- 절굴 : 천궁 마을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 절굴고랑 : 샅개 읍지 마을 남동쪽 골짜기.
- 정자나무 : 마을의 북쪽 언덕 위에 있다. 마을에서는 호야나무라고 부른다. 청원의 한경록이 심은 것으로 보이는 회화나무이다.
- 주락굴 : 맹이저수지 제방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측은벚 : 맹이저수지 북동쪽 부분. 옛날에 소금을 굽던 벚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 진고개 : 성호나루에서 장은리 무시점으로 넘는 고개.
- 짚은골 : 뽕낭굴고개 북쪽의 골짜기. 뽕낭굴의 남서쪽 부분이다.
- 차돌백이 : 하만리, 낙동리, 궁포리의 경계가 되는 곳. 천북면 소재지로 통하는 포장 도로가 지난다.
- 천궁 : 궁포리 중앙에 있는 중심 마을. 가옥이 밀집된 큰 마을로 여러 성씨가 모여 산다. 궁집(김직각집)으로 전해지는 고옥이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는 공동 우물이 있으며, 우물 옆에는 수백 년 된 향나무가 있다. 중종의 둘째 공주와 부마인 韓景祿(淸原尉)이 이곳에 와 살아 청원위궁(淸宮)이라 불리다가 천궁으로 불렸다는 전설이 있다. 마을에는 청원위가 심은 3그루의 회화나무가 있었으나 2그루는 근래 베어지고 1그루만 마을 정자나무로 남아 있다. 궁집에는 龍 崇禎紀元後三庚辰二月二十七日○ 時立柱上樑庚午生運成造壬坐丙向丁得卯波? 龜라고 써어 있어 1760년에 건축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 천궁들 : 천궁 마을과 금과 마을 북쪽에 있는 간척지. 흥기복 간척지라고도 한다.
- 천궁리(川弓里, 천궁리) : 궁포리 ‘천궁’ <1911, 朝鮮地誌資料>

- 청궁(靑宮) : 천궁의 다른 이름.
- 청인고랑 : 천궁 입구인 윗골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옛날 이곳에서 청나라 비단 장수를 죽이고 돈을 빼앗았다고 전한다.
- 초분골 : 천궁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초분을 했다고 전한다.
- 큰벚 : 맹이저수지 북동쪽 부분. 옛날에 소금을 굽던 곳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죽은벚의 북쪽 지역이다.
- 큰오마니 : 오마니 마을의 남쪽 부분.
- 파우논간사지 : 오마니 마을 북동쪽에 있는 간척지. 간척지를 막다가 7번이나 실패 했다고 전한다.
- 파원안 : 작은오마니 북쪽의 작은 골짜기. 누에머리로 둘러싸인 곳이다. 골짜기 앞에 독을 막다가 망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 피학골 : 큰오마니 서쪽에 있는 골짜기. 여섯분산과 부량당골 사이에 있다.
- 피학굴 : 삼개 예순다랭이고랑과 절굴고랑 사이에 있는 골짜기.
- 할미바위 : 큰오마니 동쪽, 옛 바닷가에 있던 흰색의 큰 돌.
- 함박굴 : 삼개 읍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 만석굴과 은적굴고랑 사이에 있다.
- 흥기북간척지 : 천궁 마을과 금파 마을 북쪽에 있는 간척지. 흥기북이 만들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궁마을(2006)



천궁 향나무와 샘(2008)



천궁 정자나무(회화나무, 2008)



천일대 기적비(2008)

2. 낙동리(洛東里)

본래 홍주군(洪州郡)의 지역으로서 낙동(洛東)이라 하였는데, 고종 광무 5년(1901)에 오천군(鰲川郡) 천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낙서동(洛西洞), 작현동(鵲峴洞), 구동(九洞), 동막동(東幕洞), 당현동(唐峴洞) 심박동(深朴洞), 본궁동(本宮洞), 송현동(松峴洞), 빙도동(氷島洞), 화곡동(禾谷洞) 일부와 결성군(結成郡) 가산면(加山面) 점촌(店村) 일부를 병합하여 낙동리라 하여 보령군 천북면에 편입하였다.

- 가마바위 : 숙구지에서 덕굴너머로 가는 모퉁이에 있는 바위.
- 각시바위고개 : 낙동리와 신덕리 사이의 고개. 천북면 소재지로 통하는 포장도로가 지난다. 신덕리 쪽에 각시바위가 있다.
- 간사지 : 빙도 마을 앞, 큰산과 작은산 사이에 있는 간척지.
- 개고랑 : 진당산의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이곳 밑에 간척지 제방을 쌓았다.
- 개목아지 : 본궁 마을 남동쪽 산줄기의 끝. 이곳과 풍구섬을 이어 간척지 제방을 축조하였다.
- 개장굴 : 당구지 마을 남쪽에 동쪽으로 향한 골짜기. 진당산과 당구지 사이에 있다.
- 개호개 : 구동굴의 입구 마을. 낙동초등학교 옆에서 진입하여 고개 너머 첫 번째 마을이다.
- 곱팡굴 : 당구지 양지뜸 마을 남서쪽 산줄기의 끝.
- 구간사지 : 숙구지와 안태 마을 남쪽에 있는 옛 간척지.
- 구동(九洞) : 구동굴의 한자 표기.
- 구동굴 : 개호개, 함박굴, 음지뜸으로 둘러싸인 구동굴의 중심 마을.
- 구동굴 : 낙동리 북동쪽 끝에 있는 마을. 중심 마을만을 지칭하기도 하고 함박굴, 양지뜸, 음지뜸, 개호개, 구동굴을 통칭하기도 한다. 신덕리,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와 경계한다.
- 구역말 : 당구지 마을의 동쪽 부분.
- 구창동(舊倉洞, 구창말) : 낙동리의 지명으로 보이나 현재는 소멸되었다. <1911, 朝鮮地誌資料>
- 까치실 : 낙동리의 북서쪽 부분. 궁포리와 의 경계 지역이다.
- 까치실굴 : 짐바굴 북쪽에 난 작은 골짜기.
- 낙서(洛西) : 낙동리 북쪽에 있는 마을.

- 날근점 : 새말의 북쪽에 있는 마을. 새말과 신아들 사이에 있다.
- 남산 : 안태 마을 남동쪽에 있는 산. 높이 63.1m이다. 남산고개의 남쪽이다.
- 남산 : 안태 마을과 원적굴 사이에 있는 66.4m의 산. 남산고개의 북쪽이다.
- 남산고개 : 안태 마을에서 본궁간사지로 통하는 고개.
- 넘말 : 본궁 마을의 남쪽 부분.
- 넘은논 : 빙도 북쪽 언덕 너머에 있는 논. 통메의 남쪽에 있다.
- 느릅골 : 빙도 옛 오천초등학교 빙도 분교 남쪽 끝에 있는 작은 산의 남쪽 끝.
- 당구지 : 낙동리의 중심 마을. 천북면 소재지로 통하는 도로가 지난다. 양지뜸과 구억말로 구분된다. 당구지, 진고랑, 새말을 통칭하기도 한다.
- 당구지골 : 당구지에서 오성간사지로 향한 골짜기.
- 당구지앞간사지 : 당구지 마을 남쪽에 있는 간척지. 40여 년 전 주민들이 축조하였다.
- 당너머 : 빙도 당산 동쪽 해안.
- 당산 : 빙도 마을 동쪽에 있는 51.2m의 산. 꼭대기에 돌로 쌓은 당집이 있다.
- 당현(唐峴) : 1960년대 낙동리 2구(松峴, 唐峴) 중 1구. 당구지의 한자 표기.
- 당현리(唐峴里, 당곳지) : 낙동리 '당구지' <1911, 朝鮮地誌資料>
- 덕굴너머 : 쑥봉과 숙구지 마을 사이에 있는 긴 골짜기.
- 동막(東幕) : 동맥이의 한자 표기.
- 동막리(東幕里) : 동맥이의 한자 표기.
- 동맥이 : 낙동초등학교 남쪽 마을.
- 탄섬 : 빙도 북쪽에 있는 작은 섬. 썰물 때면 빙도에 연결된다.
- 펜섬 : 빙도 탄섬의 다른 이름.
- 미인도(美人島) : 빙도의 옛 한자 표기.
- 바라지 : 낙동리 북쪽 끝에 있는 마을.
- 바라지수문 : 낙동리 북쪽 끝에 있는 간척지의 수문. 홍성군 은하면과의 경계 지역이다. 수문 부분은 보령시 지역이다.
- 방석배 : 빙도의 남쪽 끝. 큰산의 남쪽 끝이다. 이곳으로 오천 도미항과 연결된다.
- 방적굴 : 안태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남산의 남서쪽 골짜기이다.
- 배고픈고랑 : 숙구지와 안태 사이에 있는 골짜기. 응굴의 동쪽에 있다.
- 배장끝 : 본궁 마을 남쪽 산줄기의 끝. 개목아지의 서쪽 산줄기 끝이다. 이곳과 풍구섬을 이어 옛 간척지 제방을 축조하였다.

- 벗개 : 살고지고랑 남쪽에 있는 산줄기의 동쪽 부분을 통칭하는 이름. 간척사업 이전에 소금을 구워 붙여진 이름이다.
- 벗고랑 : 솔리매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앞은 벚터로 옛날 소금을 굽던 곳이다.
- 벗도러 : 심바굴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간척지 제방의 안쪽이다. 옛날 이곳에서 소금을 구워 붙여진 이름이다.
- 벚터 : 벗도러 앞에 있는 간척지 논. 간척 사업 이전에는 이곳에서 소금을 구웠다.
- 벚터 : 오얏굴간사지의 남동쪽, 벗고랑의 앞쪽이다. 옛날 소금을 굽던 곳이다.
- 벚터굴 : 솔리매 북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앞에 조그만 간척지가 있다. 옛날에 소금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 본궁(本宮) : 낙동리 서남쪽에 있는 중심 마을. 넘말, 안본궁, 위뜸으로 구분된다. 옛날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內需司)를 본궁(本宮)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이성계의 조상제사궁을 본궁(本宮)이라고 하여 내수사에서 관리하였다. 천북지역의 목장이 폐지된 뒤, 이곳의 토지를 내수사에서 관리하여 이성계 조상의 제사 비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여진다.
- 본궁간사지 : 본궁 마을 앞에 있는 간척지. 1960년대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막은 간척지이다. 신간사지라고도 한다.
- 본궁리(本宮里) : 본궁
- 봉두산 : 낙동초등학교 동쪽, 신덕리와의 경계에 있는 산. 76.6m이다.
- 좌산 : 빙도 큰산 동쪽 해안.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 빈섬 : 빙도의 다른 이름.
- 빙도(氷島) : 낙동리 남쪽에 있는 섬이다. 면적 0.73km²에 3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김해김씨가 집성촌을 이룬다. 섬의 동쪽은 큰산(59.9m), 서쪽은 작은산(49.0m) 북쪽은 두 산이 모여 이룬 언덕으로 둘러싸이고, 중앙에만 평지가 나타나는 섬이다. 홍보지구 사업으로 바다와 격리되고, 다리가 건설되어 육지와 연결되었다.
- 빙도 : 빙도 안에 있는 마을.
- 빙도동(氷島洞, 빈섬) : 낙동리 ‘빈섬(빙도)’ <1911, 朝鮮地誌資料>
- 뺨새굴 : 낙동리 북쪽 끝, 바라지 마을 북쪽에 바다 쪽으로 열려 있는 작은 골짜기. 바라지 수문과 오성간사지 사이에 있다.
- 살고지고랑 : 낙동리의 서남쪽 끝에 있는 골짜기. 하만리와의 경계 지역으로 축봉의 밑이다.

- 삼화농장 : 원적굴에 있는 큰 농장. 양계와 양돈을 한다.
- 새뚝 : 구동굴 마을 북쪽에 있는 내의 뚝. 천정천이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새말 : 당구지의 북쪽 부분. 농협 창고가 들어서 있다.
- 새암언덕 : 당구지 마을 남서쪽, 심바굴 남쪽에 있는 산. 높이 32.7m이다.
- 새태 : 턱굴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숙구지 서쪽 언덕 너머이다.
- 서낭댕이 : 금과 아랫말과 당구지 사이에 있었다. 신수(神樹)는 화살나무였다.
- 서낭댕이 : 낙동초등학교와 각시바위고개 사이의 도로변에 있었다. 신수(神樹)로 소나무가 있었다.
- 서낭댕이 : 심바굴에서 오얏굴로 넘어가는 언덕 위에 있었다. 신수(神樹)로는 큰 소나무가 있었고 돌이 쌓여 있었다.
- 서낭댕이산 : 심바굴과 오얏굴 사이의 서낭댕이 남쪽에 있는 산. 높이 39.4m이다.
- 소이마당 : 오얏굴에서 본궁으로 넘어오는 언덕. 옛날에 소를 매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밭으로 이용된다.
- 소중개골 : 구동굴 읍지뜸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소가 죽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솔리매 : 오얏굴간사지 동쪽에 있는 산.
- 솔리매막뿌리 : 오얏굴 간사지 동쪽에 있는 산줄기의 끝. 이곳에 이어 제방을 축조하였다.
- 솔재 : 본궁 넘말의 서쪽에 내민 작은 산줄기의 끝 부분. 이곳에 이어 옛 간척지 뚝(원뚝)을 축조하였다.
- 송현(松峴) : 1960년대 낙동리 2구(松峴, 唐峴) 중 1구.
- 송현(松峴) : 솔고개
- 송현동(松峴洞) : 본궁의 다름 이름.
- 송현동(松峴洞) : 솔고개
- 수랑치기 : 턱굴 마을 서쪽에 있는 들. 하만리와와 경계이다.
- 숙구지 : 턱굴 남쪽, 사터 동쪽에 있는 마을.
- 숙구지간사지 : 숙구지, 안태 마을 남쪽에 새로 막은 간척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화곡간사지라고도 한다.
- 숙구지골 : 숙구지 마을이 있는 골짜기.
- 시름장골 : 함박골과 바라지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옛날 씨름장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신간사지 : 본궁간사지의 다른 이름.
- 신기(新基) : 새터
- 신아들 : 낙동리의 북쪽 끝, 바라지 마을의 서쪽 언덕 너머에 있는 들. 오성간사지의 동쪽에 있는 옛 간척지이다.
- 심박굴 : 당구지 남서쪽에 있는 마을.
- 심박동(深朴洞) : 심박굴
- 축봉 : 새터 마을과 살고지고랑 사이에 있는 봉우리. 높이 78.1m이다. 옛 봉화터가 있다고 전한다.
- 안본궁 : 본궁 마을의 중심 부분.
- 안태 : 숙구지 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가옥이 3채 있다.
- 안태고랑 : 안태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애난골 : 빙도 큰산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양지뜸 : 구동굴의 북쪽 부분.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와의 경계이다.
- 양지뜸 : 당구지 마을의 서쪽 부분.
- 오리목 : 빙도 작은산에서 서북쪽으로 내민 산줄기의 끝.
- 오얏굴간사지 : 오얏굴 남쪽에 있는 간척지.
- 오얏굴골 : 본궁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오얏굴산 : 오얏굴 남서쪽에 있는 평평한 산. 높이 25.0m
- 외패미 : 원적굴 남쪽에 있는 옛 간척지 들.
- 원뚝 : 1960년대 마을 사람들이 막은 본궁 간척지의 뚝.
- 원뚝 : 당구지 양지뜸 남서쪽, 곰팡굴과 새암언덕을 이어 만든 옛 간척지의 뚝.
- 원뚝 : 본궁 마을 서남쪽에 있는 옛 간척지의 뚝.
- 원뚝 : 숙구지간사지의 뚝. 사쟁이끝과 벚개를 연결한 간척지 제방이다.
- 원뚝 : 오얏굴 간척지의 뚝.
- 원뚝 : 원안들 남쪽의 옛 간척지 뚝.
- 원안 : 낙동초등학교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봉두산의 서남쪽 골짜기이다.
- 원안농장 : 까치실 남쪽에 있는 농장.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 원안들 : 원안 마을 앞 들. 옛 간척지이다.
- 원적굴 : 본궁과 턱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삼화농장이 들어서 있다.
- 위뜸 : 본궁 마을의 북쪽 부분.

414 • 천북면

- 육굴고랑 : 빙도 작은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용굴 : 숙구지 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숙구지와 배고픈고랑 사이에 있다.
- 음지뜸 : 구동굴의 동쪽 부분.
- 작은산 : 빙도 서북쪽에 있는 산. 높이 49.0m.
- 주항동(酒缸洞, 슈랑치기) : 낙동리 '수랑치기' <1911, 朝鮮地誌資料>
- 지나논 : 낙동리 북쪽 끝, 홍성군 은하면(銀河面) 덕실리(德實里) 점말 앞에 있는 들이다. 점말은 홍성군, 점말 앞에 있는 들은 보령시에 속한다.
- 진고랑 : 당구지 동쪽 마을. 낙동초등학교 동쪽 마을이다.
- 진당산(鎭堂山) : 당구지 마을 남동쪽에 있는 산. 70여 년 전까지 당집이 있어서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 진당산쪽뿌리 : 낙동리 남동쪽 끝에 있는 진당산의 남쪽 끝.
- 차돌백이 : 하만리, 궁포리, 낙동리의 경계 지역. 턱굴 입구이다. 차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찻바탕 : 빙도 작은산 너머의 해안.
- 창리(倉里, 창말) : 낙동리 '창재'부근 마을. 현재는 불리지 않는다. <1911, 朝鮮地誌資料>
- 창재 : 본궁에서 풍구섬으로 통하는 언덕.
- 큰내깎 : 구동굴 마을 북쪽에 있는 내.
- 큰산 : 빙도의 동쪽에 있는 큰 산. 높이 89.9m이다. 꼭대기에 삼각점이 있다.
- 턱굴 : 하만리 하궁 동쪽, 수랑치기 동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원적굴의 서쪽이다.
- 통매 : 빙도 북쪽 끝에 내민 산줄기의 끝.
- 트터굴 : 낙동리 턱굴의 옛 이름. <1911, 朝鮮地誌資料>
- 풍구섬 : 본궁 마을 남서쪽 끝에 있는 섬. 이곳에 이어 간척지 제방을 축조하였다.
- 풍도(風島) : 풍구섬의 다른 이름.
- 함박골 : 구동굴과 시름장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마을.
- 화곡(禾谷) : 턱굴의 한자 표기.
- 화곡 : 낙동리의 서남쪽 끝에 있는 마을. 턱굴, 사터, 숙구지, 안테를 모두 포함하는 이름이다.
- 화곡간사지 : 숙구지간사지의 다른 이름.
- 화곡동(禾谷洞) : 턱굴의 한자 표기.



빙도 당집(1991)



삼화농장(2008)

3. 사호리(沙湖里)

본래 홍주군(洪州郡)의 지역으로서 낙동(洛東)이라 하였는데, 고종 광무 5년(1901)에 오천군(鰲川郡) 천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사정동(沙汀洞), 상판동(上板洞), 하판동(下板洞), 열호동(烈湖洞), 명포동(明浦洞), 통포동(桶浦洞), 사기점동(沙器店洞), 봉상동(峰上洞), 하선동(下仙洞)을 병합하여 사정(沙汀)과 열호(烈湖)의 이름을 따서 사호리라 하여 보령군 천북면에 편입되었다.

- 가장굴 : 아래늘문이 남쪽에 있는 골짜기. 턱골과 늘문이고개 사이에 있다. 상당한 높이까지 논으로 개간되었다.
- 감투봉 : 사쟁이 마을 동쪽에 있는 봉우리. 장은리에서는 큰평산이라고도 부른다. 높이 173.9m이다.
- 강낭굴 : 사호리 동쪽 끝, 선악골의 서북쪽으로 난 골짜기.
- 강사막굴 : 윗늘문이 남쪽에 있는 골짜기. 봉굴고랑과 통개고개(늘문이고개) 사이에 있다.
- 개미굴 : 당뿌리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해안에 인접한 비교적 깊은 골짜기이다.
- 구간사지 : 직계 마을 앞에 있는 옛 간척지.
- 구간사지 : 통개 골짜기 남쪽에 있는 들. 일제 시대에 임창(林倉)이라는 사람이 막았다고 전한다.
- 구봉산 : 사쟁이 서쪽에 있는 산. 사쟁이골과 큰부무굴 사이에 있다.
- 구불고랑 : 윗늘문이 마을 동쪽에서 북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 구불이라고 하는 열매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구새굴 : 벗개와 사기점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는 2가구가 거주하는데, 이 마을을 지칭하기도 한다. 모두 논으로 개간되었다. 골짜기의 입구에는 원호(圓弧) 모양으로 된 옛 간척지의 제방이 있다.
- 국사봉 : 사쟁이 마을 큰적굴고랑과 윗늘문이 마을 사이에 있는 산이다. 당집은 없고, 제를 지내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 군사막굴 : 사호리 북서쪽 훗내막굴고랑 남쪽에 있는 골짜기. 뒷산의 서북쪽에 있다. 옛날 앞바다에 살을 매고, 이곳에 살막을 지었으며, 잡은 고기를 대궐에 진상하여 궁살막굴로 불렀다가 군사막굴로 변했다고 전한다.
- 금방아굴 : 윗늘문이 동남쪽 봉화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봉굴고랑과 샘굴고랑 사이에 있다.
- 누에머리 : 벗개 마을 동쪽에 내민 산줄기의 끝. 높이 26.9m이다. 하만리와 경계를 이룬다.
- 늘문 : 늘문이
- 늘문이고개 : 통개 마을에서 늘문이 마을로 통하는 고개. 포장도로가 지난다. 늘문 이에서는 통개고개라고 부른다.
- 늘문이골 : 늘문이 마을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입구는 사구로 막혀있다. 한티고개 서남쪽으로 길게 뻗어 바다로 향한다. 모두 논으로 이용된다. 길이 약 2.5km이다.
- 당뿌리 : 늘문이 아랫말 남쪽, 당산의 서쪽 끝. 바다로 뻗쪽하게 내민 지형이다. 당산의 끝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근래 군 초소가 있었으나 폐쇄되었다.
- 당산 : 늘문이골 서남쪽 끝에 있는 산. 늘문이 아랫말의 남쪽이다. 마을 주민들은 당집이 있는 것도, 당제 지내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아주 오래 전에 없어진 듯하다.
- 당샘 : 사쟁이 마을 남동쪽 중죽굴고랑에 있는 샘. 옛날 당제를 지낼 때 사용하던 샘이다.
- 돌래돌이 : 아랫늘문리와 아랫말 사이에 있는 산.
- 돌래돌이고개 : 막넘어고개 정상에서 작은부무굴로 통하는 고개.
- 두루봉 : 여르문이 마을과 위통개 사이에 있는 산. 높이 116.7m로 꼭대기에 삼각점이 있다.
- 뒷굴 : 사쟁이 마을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어망굴고개 남서쪽에 있다.
- 뒷산 : 사쟁이 마을 서북쪽에 있는 산. 뒷굴과 군사막굴 사이에 있다.

- 땅재 : 여르문이 마을에서 아래통개로 통하는 고개. 꼭대기에 마을 회관이 있다.
- 땅재고랑 : 여르문이 아래뜸 남쪽에서 동북쪽으로 난 골짜기. 두루봉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막넘어 : 늘문이 고랑 서북쪽에 있는 독고밭과 작은부무굴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바다쪽으로 열려 있다.
- 막넘어고개 : 늘문이 마을에서 사쟁이로 넘어가는 고개.
- 매통골 : 작은통개의 북쪽 부분 이름. 좁고 긴 골짜기이다. 옛날 사기점골에서 그릇을 구울 때 이곳에서 흙을 파갔다고 전한다.
- 목넘어 : 여르문이 아랫말의 해안 쪽 부분. 근래 우럭 종묘를 생산하는 양어장이 들어서 있다.
- 밀과실고개 : 늘문이 고랑 꼭대기에서 밀과실로 넘어가는 고개.
- 방죽굴 : 큰부무굴 위쪽의 골짜기. 옛날 큰 묘가 있었고 묘를 위한 방죽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백태골고랑 : 윗늘문이 큰복사골의 다른 이름.
- 번딘 : 여르문이 북쪽 부분에 있는 평평한 지형. 큰골의 북서쪽이다. 땅이 평평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 벗개 : 사호리의 남동쪽 끝, 절굴의 남쪽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간척사업 이전에는 소금을 구워 붙여진 이름이다.
- 벗날 : 벗개의 다른 이름.
- 벗날 : 벗넘어 마을 앞. 간척지를 말함. 옛날 소금을 굽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벗날산 : 벗개 마을 북쪽에 있는 산.
- 벗넘어 : 아래통개의 남쪽, 직계의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옛날 이곳에서 소금을 구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봉굴고랑 : 위통개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안에 작은 봉굴고랑과 큰봉굴고랑이 있다.
- 봉굴고랑 : 윗늘문이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봉화산의 서북쪽 골짜기이다. 금방아굴과 강사막굴 사이에 있다.
- 봉상동(峯上洞, 봉위굴) : 사호리의 지명으로 보이나 소멸됨 <1911, 朝鮮地誌資料>
- 봉오지뿌리 : 여르문이 마을 남쪽에 있는 산(집건너)의 서남쪽 끝.
- 봉화산(烽火山) : 사호리 동쪽, 장은리와 의 경계되는 산이다. 높이 202.8m로 옛 흥양곶(興陽串) 봉수가 있어 남으로 보령 조침산(助侵山, 주교면 송학리 봉대산), 북으로 결성 고산(高山) 봉수와 연결되었다. 꼭대기에는 봉화대의 흔적이 있었으나

근래에 훼손되었다. 청룡산이라고도 부른다.

- 사기점고개 : 작은통개에서 사기점으로 넘어가는 고개.
- 사기점굴 : 작은통개와 구새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사기를 굽던 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천북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사기를 구웠다고 전한다. 지금도 사기를 굽던 자리가 있다.
- 사기점저수지 : 사기점굴 입구에 있는 저수지이다. 도로가 제방을 이루며 땅을 파서 저수지를 만들었다. 주변은 옛 바닷가로, 작은 자갈이 쌓여있어 지하수가 많다. 가물 때는 양수기 20여 대가 폼어도 마르지 않는다. 근래 황금샘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 사쟁이 : 사호리의 서북쪽 끝에 있는 마을. 서쪽으로 열려진 골짜기에 들과 마을이 있다.
- 사쟁이고랑 : 사쟁이 마을이 있는 골짜기.
- 사정동(沙汀洞) : 사쟁이의 한자 표기.
- 상판동(上板洞) : 사호리 ‘윗늘문이’ <1911, 朝鮮地誌資料>
- 새암고랑 : 아랫늘문이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당뿌리와 턱골 사이에 있다.
- 샘골 : 여르문이 윗말 남쪽에서 동쪽으로 뻗은 작은 골짜기. 땅재고랑과 큰골 사이에 있다.
- 샘굴고개 : 원무굴 저수지 북쪽에서 절굴로 통하는 고개.
- 샘굴고랑 : 윗늘문이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봉화산의 북쪽에 난 골짜기이다.
- 샘뒤산 : 여르문이 윗말 동쪽에 있는 산. 높이 103.3m이다.
- 서낭댕이 : 아래통개 마을에서 작은 통개골로 넘어가는 길에 있다. 신수(神樹)로는 벗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 서낭댕이고개 : 아래 통개 마을에서 작은통개골로 넘어가는 길. 서낭댕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선악골 : 사호리의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입구는 벗개 마을이고, 안에는 강낭굴, 절굴, 심바굴의 세 골짜기가 있다.
- 선악굴저수지 : 절굴 마을 남쪽 선악굴에 있는 저수지.
- 선학동(仙鶴洞) : 선학골의 한자 표기.
- 시운질바위 : 사쟁이 서북쪽 끝에 있는 바위. 뒷산의 서쪽 끝이다.
- 신간사지 : 벗넘어 마을 앞에 있는 간척지. 1980년대에 막았다고 전한다.
- 심바굴 : 선악골 동쪽 안에 있는 긴 골짜기. 골짜기 안이 모두 논으로 개간되었다.
- 아래통개 : 통개 마을의 남쪽 부분.

- 아랫늘문이 : 늘문이 마을의 가운데 부분. 사쟁이와 통하는 길이 지난다.
- 아랫말 : 늘문이골 서쪽 끝. 사구 위와 산 밑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농업과 함께 어업도 겸하고 있다.
- 아랫말 : 여르문이 마을의 남쪽 부분.
- 아재고랑 : 사쟁이 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장은리 앓재 마을로 통하는 고개가 있다.
- 앓재고개 : 사쟁이에서 장은리 앓재 마을로 통하는 고개. 장은리에서는 사쟁이고개라고 부른다.
- 앞장벌 : 여르문이 아랫말 서남쪽에 있는 모래밭.
- 어망굴고개 : 사쟁이에서 장은리 어망굴로 통하는 고개.
- 여르문이 : 사호리 서쪽 바닷가 마을. 안면도와 마주하는 마을이다. 해안이 언덕으로 이루어져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치가 아름다운 마을이다. 윗말과 아랫말로 구분된다.
- 열문이 : 여르문이의 다른 이름.
- 열호(烈湖) : 여르문이의 한자 표기.
- 열호동(烈湖洞) : 여르문이의 한자 표기.
- 우포동(羽浦洞) : 사호리 ‘직계’ <1911, 朝鮮地誌資料>
- 옥굴 : 선악굴 동쪽 안에 있는, 심바굴 입구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옥굴고개의 서쪽이다.
- 옥굴고개 : 절굴에서 하만리 뒤뜰로 통하는 고개.
- 원뚝 : 사호리 통개 남쪽 벗넘어에서 학성리로 이은 간척지의 제방.
- 원뚝 : 여르문이 마을 서쪽에 있는 제방.
- 원무덤저수지 : 강낭굴 안에 있는 저수지.
- 위통개 : 통개 마을의 북쪽 부분. 늘문이고개 밑 파래굴과 봉굴고랑으로 갈라지는 지점에 위치한다. 큰통개라고도 한다.
- 윗늘문이 : 늘문이 마을의 동쪽 부분.
- 윗말 : 여르문이 마을의 북쪽 부분.
- 작은구새굴 : 구새굴과 벗개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작은복사굴 : 늘문이 구불고랑과 큰복사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당산의 남쪽에 있다.
- 작은적굴고랑 : 사쟁이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감투봉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통개 : 통개골 동쪽에 있는 좁고 깊은 골짜기. 사기점골의 서쪽에 있다. 골짜기의 길이는 1.5km에 이른다.
- 작은통개고개 : 위통개에서 작은통개골을 통하여 사기점골로 넘어가는 고개.
- 장벌 : 여르문이 마을의 해안.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 장벌 : 직계 마을 남쪽에 있는 모래 언덕. 근래 종묘 생산을 위한 양어장과 축사가 들어서 있다.
- 절굴 : 선악골 북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절터 : 선악골 절굴 동북쪽에 있다.
- 중죽굴 : 사쟁이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 안에 당샘이 있다.
- 중죽굴고개 : 사쟁이에서 중죽굴을 통하여 윗늘문리로 넘어가는 고개.
- 작은봉굴고랑 : 위통개 동북쪽에 난 골짜기.
- 작은부무굴 : 사쟁이와 늘문이 마을 사이에 있는 두 골짜기 중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지아자굴 : 늘문이고개와 함박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직개 : 직계의 다른 이름.
- 직계 : 아래통개 마을 서남쪽, 여르문이의 남동쪽에 있는 마을. 마을 앞에는 간척지가 있다.
- 차돌백이고랑 : 선악골 동쪽 골짜기인 십바골의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차돌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 참샘물 : 여르문이 마을 북쪽에 있는 샘. 해안 장벌에서 나오는 민물 샘이다. 물이 차고 좋아 붙여진 이름이다. 당뿌리의 남쪽에 있다.
- 큰굴 : 여르문이 윗말에서 동북쪽으로 난 큰 골짜기.
- 큰복사굴 : 늘문이 작은복사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 백토가 나와 백태고랑이라고도 한다.
- 큰봉굴고랑 : 위통개 동쪽에 난 깊은 골짜기. 봉화산의 서남쪽이다.
- 큰부무굴 : 사쟁이와 늘문이 마을 사이에 있는 두 골짜기 중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큰적굴고개 : 사쟁이 큰적굴고랑에서 윗늘문리로 넘는 고개.
- 큰적굴고랑 : 사쟁이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국사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통개 : 위통개의 다른 이름.
- 턱굴 : 아래늘문이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새암고랑과 가장골 사이에 있다.
- 통개 : 사호리 중앙에 남북으로 뻗은 긴 골짜기에 있는 마을. 위통개(큰통개)와 아래통개로 구분된다. 약 2.5km 되는 골짜기이다.

- 통개고개 : 통개 마을에서 늘문이 마을로 통하는 고개. 포장도로가 지난다. 통개에 서는 늘문이고개라고 부른다.
- 통포(桶浦) : 통개의 한자 표기.
- 통포리(桶浦里) : 통개의 한자 표기.
- 파래굴 : 늘문이고개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상당한 높이까지 논으로 개간되었다.
- 판문(板門) : 늘문의 한자 표기.
- 판문리(板門里) : 늘문의 한자 표기.
- 하선동(下仙洞, 하선학) : 선악굴. 선악굴이라는 지명은 현재도 살아 있다. 아래선학굴이라는 뜻으로 ‘하선동’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1911, 朝鮮地誌資料>
- 하판동(下板洞) : 아랫늘문이 <1911, 朝鮮地誌資料>
- 한티고개 : 늘문이 마을에서 장은리 봉굴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에는 큰 길이었다.
- 할딱지 : 막넘어고개 북쪽 부분을 사쟁이에서 부르는 이름.
- 함박굴 : 위통개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지아자굴 서남쪽에 있다.
- 호랭이턱거리바위 : 사기점굴 꼭대기에서 구새굴 꼭대기로 넘어오는 고개에 있는 바위이다.
- 홀재굴 : 여르문이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번딤의 북쪽 부분에서 동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이다.
- 황금샘 : 사기점저수지의 다른 이름. 가뭄 때 물이 많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 훗내막굴고랑 : 사호리 북서쪽 끝에 있는 골짜기. 훗내막굴산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훗내막굴산 : 사호리의 서북쪽 끝. 장은리와의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00.3m이다. 삼각점이 있다.



여르무니 해안(2003)



사쟁이 굴양식장(2008)

4. 신덕리(新德里)

본래 홍주군(洪州郡)의 지역으로서 낙동(洛東)이라 하였는데, 고종 광무 5년(1901)에 오천군(鰲川郡) 천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상신리(上新里), 하신리(下新里), 명곡동(明谷洞), 수곡동(水谷洞), 소덕동(小德洞), 웅천동(熊川洞), 덕두리(德頭里), 언내동(堰內洞)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상신(上新)과 덕두(德頭)의 이름을 따서 신덕리(新德里)라 하여 보령군 천북면에 편입하였다.

- 각시바위 : 각시바위고개 동쪽, 신덕리 지역에 있는 바위이다. 도로공사 때 없애 버렸는데 사고가 많이 나 다시 가져다 놓았다. 보령 지방에서 각시바위는 신격화된 바위이다. 부침바위라고도 한다.
- 각시바위고개 : 개사리골과 낙동리 사이에 있는 고개.
- 감나무굴 : 위숙굴 청룡울 동남쪽에 있는 마을.
- 개사리 : 곰내 마을 서쪽, 개사리골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봉두산의 동쪽이다.
- 개사리골 : 곰내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건너뜀 : 위숙굴 큰골 위에 있는 마을.
- 골말 : 덕머리의 동쪽, 광덕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 골밭 : 곰내에서 덕머리 등검말로 들어오는 도로가 지나는 골짜기.
- 곰내 : 신덕리 중앙, 천북면 소재지로 통하는 도로변에 있는 마을. 단위 농협 창고가 있고 숙굴, 덕머리로 통하는 도로가 갈라진다.
- 광덕사(廣德寺) : 덕머리 큰말에 있는 절.
- 광덕사 : 광덕산 서쪽 골짜기에 있는 절.
- 광덕산 : 덕머리 동북쪽에 있는 산. 높이 133.4m이다.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와 의 경계이다.
- 꼬창굴 : 위숙굴 앞에 있는 마을. 목논노리와 청룡울 사이에 있다.
- 끝미봉 : 위숙굴 목논노리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80.1m이다.
- 덕두(德頭) : 1960년대 신덕 2구(小德, 德頭) 중 1구
- 덕두(德頭) : 덕머리의 한자 표기.
- 덕두리(德頭里) : 덕머리의 한자 표기.
- 덕머리 : 신덕리의 북쪽 끝,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와 의 경계 지역에 있는 큰 마을. 신덕리의 중심 마을이다. 골말, 등검말, 큰말로 구분된다.

- 도독재 : 신덕리 서북쪽 끝에 있는 마을. 중무덤 마을의 남동쪽, 황새말의 서쪽이다.
- 도장굴고개 : 위숙굴 큰골 위에 있는 마을.
- 도장굴고개 : 위숙굴 큰골에 있는 건너뜀에서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로 넘어가는 고개.
- 등검말 : 덕머리의 서쪽 부분. 등검말이라고도 한다.
- 뜸설밭 : 곰내 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 개사리골의 동쪽에 있다.
- 마슴밭재 : 곰내 마을에서 덕머리로 들어오는 언덕.
- 명곡동(明谷洞, 명곡리) : 신덕리의 소멸된 지명. <1911, 朝鮮地誌資料>
- 목논노리 : 아래숙굴과 꼬창굴 사이에 내민 산줄기의 끝 부분.
- 봉두산 : 개사리 마을 서쪽에 있는 산. 낙동리와 경계되는 산이다.
- 부침바위 : 각시바위의 다른 이름이다. 옛날 사람들이 돌을 붙여 놓았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이다.
- 산제터 : 덕머리 등검말 서북쪽 봉우리. 높이 45.3m이다. 예부터 기우제를 지내곤 하였다.
- 상신동(上薪里, 위숙골) : 위숙굴. <1911, 朝鮮地誌資料>
- 새뜸 : 위숙굴 큰골의 동쪽에 있는 마을.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와의 경계이다.
- 소덕(小德) : 1960년대 신덕 2구(小德, 德頭) 중 1구
- 소덕 : 도독재, 중무덤을 통칭하는 이름.
- 소덕동(小德洞, 소덕리) : 소덕. <1911, 朝鮮地誌資料>
- 소중개골 : 중무덤 서북쪽 골짜기.
- 소중개산 : 중무덤 서북쪽 소중개골과 여수해골 사이에 있는 산.
- 수곡(水谷) : 숙굴의 한자 표기.
- 수곡동(水谷洞) : 숙굴의 한자 표기.
- 수작동(水鶴洞, 숙골) : 숙굴. <1911, 朝鮮地誌資料>
- 숙굴 : 곰내 동북쪽 숙굴 고랑에 있는 마을. 아래숙굴, 꼬창굴, 청룡울, 위숙굴, 건너뜀, 감나무굴, 염생이 등으로 구분된다.
- 숙굴고랑 : 곰내 동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 신덕천(新德川) : 수곡에서 원안으로 흘러가는 내.
- 아래숙굴 : 숙굴의 서쪽에 있는 마을. 점태골과 목논노리 사이에 있다.
- 언내동(堰內洞) : 원안의 한자 표기.
- 여수해골 : 소중개산 동쪽, 공동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엽생이 : 위숙굴 엽생이 동남쪽에 있는 산. 신죽리와 의 경계이다.
- 웅천(熊川) : 곰내의 한자 표기.
- 웅천동(熊川洞) : 곰내의 한자 표기.
- 원덕(元德) : 덕머리의 원마을.
- 원안 : 신덕리의 남쪽 끝. 원안 마을 앞에 있는 들.
- 원안고개 : 개사리에서 원안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위숙굴 : 숙굴 고랑의 위 부분.
- 용전고개 : 덕머리 큰말에서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로 넘어가는 고개.
- 절골 : 덕머리 동북쪽, 광덕산의 광덕사가 있는 골짜기.
- 점태골 : 곰내와 아래숙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덕머리 큰말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중무덤 : 도둑재 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
- 집넘어고개 : 덕머리 등검말에서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로 넘어가는 고개.
- 청룡굴 : 위숙굴에 있는 마을. 목논노리와 청룡울 사이에 있다.
- 청연사(靑蓮寺) : 덕머리 큰말에 있는 절.
- 큰말 : 덕머리 남쪽의 큰 마을. 원덕이라고도 한다.
- 통샘골 : 덕머리 마을 앞 골짜기 들.
- 하신동(下薪洞, 아리숙굴) : 아래숙굴. <1911, 朝鮮地誌資料>
- 허구배미 : 개사리골의 포장도로 북쪽에 있는 논.
- 홍지밭고개 : 위숙굴에서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로 통하는 고개. 위숙굴 주민들이 고개를 이용하여 광천으로 통한다.
- 황새밭 : 뜰밭 북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덕머리 큰말(2003)



청련사(2008)

5. 신죽리(新竹里)

본래 홍주군(洪州郡)의 지역으로서 낙동(洛東)이라 하였는데, 고종 광무 5년(1901)에 오천군(鰲川郡) 천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천파동(川巴洞), 구봉동(九峯洞), 죽현리(竹峴里), 농현리(農峴里), 신촌(新村)과 웅천동(熊川洞), 언내동(堰內洞)의 각 일부와 결성군(結城郡) 가산면(加山面)의 죽현리(竹峴里), 농현리(農峴里), 염리(鹽里), 신리(新里), 마촌(馬村)을 병합하여 신촌(新村)과 죽현(竹峴)의 이름을 따서 신죽리라 하여 보령군 천북면에 편입하였다.

- 개맥이 : 말마지 마을의 서쪽, 사태 마을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
- 검복산 : 농고개와 말마지 사이에 있는 산. 높이 117.4m이다.
- 구간사지 : 새말 구간사지 남쪽에 막은 간척지. 쇠다리 와 홍성군 은하면 장신리를 연결하였다.
- 구봉골 : 뗏고개 마을과 서낭댕이 고개 사이에 있는 골짜기.
- 구봉동(九峰洞, 굽병골) : 구봉골. <1911, 朝鮮地誌資料>
- 구봉산 : 천기고랑 북쪽에 있는 산. 신덕리, 은하면 장척리와와 경계이다.
- 꿀미봉 : 구봉골과 아래숙굴 사이에 있는 봉우리. 높이 80.1m이다.
- 농고개 : 뗏고개와 새말 사이에 있는 마을. 보령시 문화재로 지정된 편무성 가옥이 있다.
- 농고개등생이 : 농고개와 새말 사이에 있는 언덕.
- 농현(農峴) : 농고개의 한자 표기.
- 농현리(農峴里) : 농고개의 다른 이름.
- 당머리 : 삼산의 가운데 마을. 석은이골과 새말 사이의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당산 : 삼산 석은이골 동쪽에 있는 낮은 산. 당집은 없고, 마을 주민들도 당제 지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 당산 : 신죽리 서남쪽 끝에 있는 산. 높이 56.5m이며 삼각점이 있다. 당산이라고만 불릴 뿐 당제 지내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 뗏고개 : 신죽리 북쪽의 중심 마을. 천북면 소재지로 통하는 도로가 지난다.
- 둥병재 : 말마지 마을에서 사태 마을로 넘어가는 재.
- 뒷동산 : 뗏고개 서쪽, 참새골 위에 있는 산. 검복산의 북쪽이다.

- 드렁터 : 천기고랑 남쪽의 들. 연달미의 남쪽이다.
- 마촌(馬村) : 1960년대 신죽리 3구(新峴, 馬村, 竹峴) 중 1구.
- 마촌골 : 말마지골의 다른 이름.
- 말마지 : 신죽리의 서남쪽에 있는 큰 마을.
- 말마지간사지 : 말마지 마을 앞에 있는 간척지. 김인창이 막았다고 전한다.
- 말마지골 : 말마지 마을 남쪽 골짜기.
- 목벗모랭이 : 말마지 마을과 사구시 사이에 있는 모랭이. 옛날 소금을 굽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바위백이 : 새말 동북쪽에 있는 들. 구봉골의 남쪽이다.
- 밭새논 : 큰골과 바위백이 사이에 있는 논.
- 사구지 : 말마지 마을과 당산 사이에 있는 옛 간척지. 주변에 있는 마을을 지칭하기도 한다.
- 사리목쟁이 : 새말 동쪽에 있는 산줄기의 끝.
- 사태 : 말마지 북쪽에 있는 마을.
- 삼도(三島) : 삼섬의 한자 표기.
- 삼산 : 신죽리의 동남쪽에 있는 석은이골, 당머리, 새말을 통칭하는 이름.
- 삼섬 : 새말 남쪽 간척지에 있는 작은 섬. 작은 섬이 3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새말 : 신죽리의 남쪽 끝에 있는 마을. 농고개의 남쪽에 있다.
- 새암골 : 삼산 서남쪽 초장골과 소바위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서낭고개 : 말마지에서 황새모랭이로 이어지는 고개. 말마지 북쪽에 있다.
- 서낭댕이 : 말마지 마을 북동쪽에 있는 서낭고개에 있다. 신수로 위해지던 소나무가 현재도 남아 있다.
- 소바위 : 신죽리의 남쪽 끝에 있는 바위. 이곳에 이어 삼산 남쪽의 신간사지를 축조하였다.
- 쇠다리 : 신죽리 남쪽, 검북산의 남쪽 해안 지역을 통칭하는 말.
- 쇠다리고개 : 말마지에서 쇠다리로 넘는 고개. 청룡을 넘는 고개이다.
- 신촌(新村) : 새터의 한자 표기.
- 신촌(新村,시말) : 새말. <1911, 朝鮮地誌資料>
- 신현(新峴) : 1960년대 신죽리 3구(新峴, 馬村, 竹峴) 중 1구
- 아랫말 : 말마지 마을의 동남쪽 부분.
- 안고잔 : 말마지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당산과 진동산 사이에 있다. 고잔은 꽃의

안쪽이라는 의미이다.

- 연달미 : 천기고랑의 남쪽 들. 댕고개의 동쪽 부분이다.
- 옷말 : 말마지 마을의 서북쪽 부분.
- 원안들 : 사태마을 남서쪽에 있는 들.
- 육골재 : 석은이골에서 쇠다리 쪽으로 넘어가는 재. 검북산의 남쪽이다.
- 절골 : 말마지 남쪽, 청룡골의 다른 이름.
- 죽현(竹峴) : 1960년대 신죽리 3구(新峴, 馬村, 竹峴) 중 1구
- 죽현(竹峴) : 댕고개의 한자 표기.
- 죽현리(竹峴里) : 댕고개의 한자 표기.
- 진동산 : 안고잔과 말마지 간사지 사이에 있는 낮고 긴 산.
- 짐바굴 : 말마지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사태의 동쪽 언덕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 참새골 : 댕고개 서쪽에 있는 골짜기. 구봉골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천기 : 천기골에 있는 마을.
- 천기고개 : 신죽리 북동쪽 끝에 있는 고개.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와의 경계이다.
- 천기고랑 : 신죽리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안에 목장이 들어서 있다.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와의 경계지역이다.
- 천과동(川巴洞, 천과) : 천과라는 지명은 소멸되고 현재는 ‘천기’라고 불린다.
〈1911, 朝鮮地誌資料〉
- 청룡 : 말마지 남쪽에 검북산에서 내민 산줄기. 말마지 마을의 좌청룡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청룡골 : 말마지 청룡의 서쪽 끝.
- 청룡안 : 말마지 마을의 남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청룡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초장굴 : 삼산 석은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큰골 : 신죽리 동쪽 끝에 있는 골짜기. 삼화농장이 들어서 있다. 옛날 초분을 했던 곳이라고 전한다.
- 큰벚 : 말마지간사지 동쪽 해안에 있는 옛 소금 굽던 곳
- 황새모랭이 : 황새모랭이골 안에 있는 작은 마을.
- 황새모랭이골 : 신죽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천북 소재지로 통하는 도로의 북쪽이다. 이 도로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는 짐바굴이다.



덧고개(1996)



농고개 정자나무(2008)

6. 장은리(長隱里)

본래 홍주군(洪州郡)의 지역으로서 낙동(洛東)이라 하였는데, 고종 광무 5년(1901)에 오천군(鰲川郡) 천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은포동(隱浦洞), 수철리(水鐵里), 장곶리(長串里), 매향동(梅香洞), 봉하동(峰下洞), 밀포동(密浦洞), 아포리(牙浦里), 어망동(漁網洞), 종지동(宗芝洞) 일부를 병합하여 장곶(長串)과 은포(隱浦)의 이름을 따서 장은리(長隱里)라 하여 보령군 천북면에 편입되었다.

- 가장굴고랑 : 끝도로 마을과 무시점 마을 사이에 북쪽으로 난 골짜기. 당산의 남쪽 골짜기이다.
- 간사지내 : 장은리 중앙 간사지 안에 있는 내.
- 감 : 장은리 마을 가운데에 있는 구간사지의 둑 자리를 부르던 옛 이름이다. 이곳에 돌을 쌓아놓고 간조 때 건너다녔다.
- 공동묘지길 : 맹이 마을 앞, 하만리와 의 경계 지역에 있는 길. 하만리 공동묘지의 북쪽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공판 : 만석굴 중간에 있는 평평한 곳. 두루봉의 동쪽 기슭이다. 옛날 나무꾼들이 공을 치던 곳이다.
- 관쟁이 : 맹이 마을 북쪽에서 진구지로 내려가는 골짜기를 통칭하는 말. 아랫관쟁이와 윗관쟁이로 구분된다.
- 뽕나무굴고개 : 맹이에서 궁포리 뽕나무굴로 통하는 고개.
- 구간사지 : 동이점 마을 앞에 있는 옛 간척지.
- 구뚝 : 동이점 마을 앞에 있는 구간사지의 둑.

- 구레 : 맹이 마을 앞에 있는 들.
- 군사막굴 : 오망굴 서쪽 바닷가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끄티 : 오망굴의 서북쪽 끝. 패총이 있었는데 근래 훼손되었다.
- 끝도로 : 구간사지 뚝 북쪽에 있는 마을. 과거 도로의 끝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정미소가 있다.
- 끝도로고개 : 끝도로 마을 북쪽에 있는 낮은 언덕. 용굴로 통한다.
- 넓적굴 : 밀파실 위뜸 남쪽에 있는 골짜기 중 동쪽에 있는 골짜기. 늘문이고개로 오르는 길이 지난다.
- 느락굴 : 장은리 서쪽 해안에 있는 골짜기. 백목전과 조복굴 사이에 있다. 논으로 개간되었고 입구에는 제방을 축조하였다.
- 느락굴고개 : 느락굴에서 숨은개골 안 불당굴로 통하는 고개.
- 늘문이고개 : 밀파실에서 사호리 늘문리로 넘어가는 고개. 넓적굴로 통한다. 늘문이에서는 밀파실고개라고 부른다.
- 당미 : 당미고랑 안에 있는 마을.
- 당미 : 봉굴과 당미 마을 사이에 있는 산. 높이 76.0m이다.
- 당미고랑 : 봉굴고랑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당산 : 무시점 마을 북쪽에 있는 산. 높이 73.5m이다. 당집이나 당제지내는 것을 노인들도 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아주 오래전에 없어진 듯하다.
- 당산 : 부앵이골 남쪽에 있는 산. 높이 80.6m이다. 당집도 없고 당제 지내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아주 오래전에 없어진 듯하다.
- 당산 : 윗부앵이 남서쪽에 있는 산. 개인적으로 위했다고 한다.
- 도랫말 : 맹이 마을 남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마을.
- 도랫말굴 : 맹이 도랫말 앞에 있는 골짜기.
- 독서굴 : 친구지 마을 남동쪽 봉굴고랑 맞은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동이점 : 장은리 동북쪽 끝에 있는 마을. 옛날 동이를 만들던 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에 질 좋은 진흙이 출토되어 점이 생겼으며, 1960년대까지 그릇을 구웠다고 한다.
- 동이점간사지 : 동이점 마을 앞에 있는 간척지.
- 동이점고개 : 무시점 마을과 동이점 마을 사이에 있는 고개.
- 동이점고개 : 아랫부앵이 마을에서 동이점으로 통하는 고개. 부앵이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동이점측은간사지 : 동이점 서북쪽에 있는 작은 간척지. 1987년 홍수에 제방이 유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
- 두루봉 : 만석굴과 어탱이고랑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131.8m이다.
- 등경산 : 용굴과 숨은개골 안 불당굴 사이에 있는 산. 높이 58.4m이다.
- 판봉 : 부앵이골과 사발뱅이 북쪽에 있는 작은 섬. 이 섬에 이어 간척지를 축조하였다. 높이 21.4m이다.
- 만석굴 : 무시점 마을 남쪽, 큰 골짜기 입구에 있는 마을. 진구지의 서쪽이다.
- 만석굴 : 무시점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말랭이고개 : 용굴(큰수문개)에서 샘굴로 넘어가는 재. 설치기고개라고도 한다.
- 매봉재 : 부앵이 마을에서 함박굴로 통하는 고개.
- 매실봉 : 멍이 통봉의 다른 이름.
- 매조 : 멍이 마을의 다른 이름.
- 매향동(梅香洞, 미향리) : 멍이 <1911, 朝鮮地誌資料>
- 매향리(梅香里) : 멍이 마을의 한자 표기.
- 멍이 : 장은리의 남동쪽 끝에 있는 마을.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에 바닷가에 향나무를 묻던 매향(埋香) 풍습에 의해 향나무를 묻은 마을로 생각된다.
- 멍이안골 : 멍이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무쇠점 : 무시점의 다른 이름. 주민들은 보통 무시점으로 부른다.
- 무시점 : 장은리 서쪽에 있는 중심 마을. 장은초등학교가 있다가 폐교되었다. 옛날 무쇠를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 무시점고개 : 윗부앵이에서 무시점으로 통하는 고개. 부네미고랑으로 오른다.
- 밀과실 : 앓재 마을과 어탱이 마을 사이의 골짜기에 있는 마을. 아래뜸과 위뜸으로 구분된다.
- 밀과실굴 : 밀과실 마을이 있는 골짜기. 앓재와 어탱이 사이에 있다.
- 밀포(密浦) : 밀과실의 한자 표기.
- 밤까시고개 : 하만리와 장은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 포장도로가 지난다.
- 백목전 : 장은리 서쪽 끝. 새로운 간척지 제방 북쪽에 있는 산. 높이 44.6m이다.
- 벌말 : 진구지와 무시점 아래뜸 사이에 있는 들.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 병풍바위 : 무시점 아래뜸과 만석굴 사이에 있던 바위이다. 2개로 되어있는데 땅에 묻혔다고 한다.
- 보들 : 무시점 마을과 만석굴 사이에 있는 들.

- 봉굴고개 : 만석굴 한티고랑에서 봉굴로 통하는 고개.
- 봉굴고랑 : 봉화산 동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모두 논으로 되었다. 안에 마을도 있다.
- 봉하동(峯下洞, 봉의골) : 봉굴. <1911, 朝鮮地誌資料>
- 봉화굴 : 봉굴고랑 안에 있는 마을. 현재 주민의 거주는 없고 축사만 있다.
- 봉화산 : 장은리와 사호리 사이에 있는 봉화를 올리던 산이다. 보령 조침산에서 받아 결성 고산봉수로 연결하였다. 삼각점이 있고 높이 202.8m이다.
- 봉화산고랑 : 봉굴고랑 가장 안쪽, 봉화산 동쪽 골짜기이다.
- 부네미고랑 : 무시점 위뜸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부앵이로 통하는 산길이 있다.
- 부네미고랑 : 윗부앵이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무시점으로 통하는 길이 지나다.
- 부앵굴 : 친구지 아래뜸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부앵이 : 장은리 북쪽에 있는 마을. 아랫부앵이와 윗부앵이로 구분된다.
- 부앵이고개 : 아랫부앵이와 동이점 사이에 있는 고개. 동이점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부앵이골 : 장은리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북굴 : 무시점 아래뜸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아래뜸과 삼포재 사이에 있다.
- 불당굴 : 숨은개골 안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 등경산의 북쪽에 있다.
- 비석센고랑 : 봉굴고랑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숙지골과 봉화산고랑 사이에 있다.
- 빙점 : 아랫부앵이와 윗부앵이 사이의 밭을 이르는 말.
- 사기장골 : 동이점 마을에 있는 골짜기의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이곳에 백토가 나와 옛날에 사기를 구웠다고 전한다. 서낭고개의 동쪽 밑이다.
- 사발땡이 : 장은리 마을 북서쪽, 부앵이골과 함박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사발봉 : 부앵이골과 동이점 죽은간사지 사이에 길게 내민 산.
- 사쟁이고개 : 앓재 마을에서 사호리 사쟁이로 넘어가는 고개.
- 사쟁이고개 : 오망굴에서 사호리 사쟁이로 넘어가는 고개.
- 사캐뿌리 : 동이점과 나룻개 사이에 내민 산줄기의 끝. 장은리와 궁포리의 경계를 이룬다.
- 살마짜 : 오망굴과 앓재 마을 사이에 있는 산. 높이 70.7m이다.
- 삼박굴 : 만석굴 안쪽에 있는 한티고랑에서 남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 봉굴 고개를 통하여 봉굴 안 신침지골로 통한다.
- 삼포재 : 친구지에서 삼개로 통하는 재.
- 새추장 : 용굴 동쪽에 있는 산. 옛날 무시점에서 숨은개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며, 성황당도 있었다.

- 샘굴 : 숨은개골의 꼭대기에 있는 마을. 용골에서 부엡이로 가는 길 밑에 있다.
- 서낭고개 : 무시점에서 숨은개로 통하는 고개. 새추장으로 통하며 성황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서낭고개 : 밀과실 마을에서 어텡이 마을로 통하는 작은 고개. 서낭댕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서낭고개 : 윗부엡이에서 동이점으로 통하는 고개. 옛날에는 성황당이 있었다. 신수로는 소나무가 있고, 돌무더기가 있었다고 한다.
- 서낭댕이 : 무시점에서 숨은개로 통하던 길에 있던 성황당이다. 말랭이고개 동남쪽 산허리에 있었다. 신수(神樹)로는 벚나무가 있었으며 돌이 쌓여 있었다.
- 서낭댕이 : 밀과실 마을과 어텡이 마을 사이의 서낭고개에 있다. 신수로는 큰 벚나무가 있었다.
- 서낭댕이 : 친구지에서 삼재로 통하는 큰 도로가 지나는 고개인 술고개에 있었다. 신수(神樹)는 벚나무였다.
- 선주샘굴 : 끝도로 마을 동쪽에서 동북쪽으로 난 골짜기.
- 설치기고개 : 용골에서 숨은개 샘굴로 통하는 고개. 말랭이고개라고도 한다.
- 성호개 : 천북면과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사이에 있는 좁은 만.
- 술고개 : 친구지에서 삼재로 통하는 큰 도로가 지나는 고개. 성황당이 있었다.
- 수문개 : 숨은개의 다른 이름.
- 수문개앞덤장 : 수문개 마을 서쪽에 치던 고기잡이 그물.
- 수문개위치덤장 : 수문개 마을 북쪽에 치던 고기잡이 그물.
- 수철(水鐵) : 1960년대 사호리 2구(長巴, 水鐵) 중 1구
- 수철리(水鐵里) : 무시점의 한자 표기.
- 수철리(水鐵里, 무슈점) : 무시점 <1911, 朝鮮地誌資料>
- 숙지골 : 봉굴고랑 안쪽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비석센고랑과 회터굴 사이에 있다.
- 숨은개 : 장은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 끝도로, 용골, 샘굴, 불탄굴, 아름말을 통칭한다. 원래는 숨은개골 안에 있는 마을만을 지칭했을 것으로 보인다. 숨은개 마을에는 300여 년 전 교하노씨가 경기도에서 이주해 왔다고 한다.
- 숨은개골 : 장은리의 서북쪽 바다로 열린 골짜기. 골짜기 안에 샘굴, 불당굴, 아름말이 있다.
- 신간사지 : 동이점 마을 앞에 있는 새로운 간척지. 1960년 대에 제방을 축조했다고 한다. 종지섬을 제방으로 연결하여 간척지를 축조하였다.

- 신간사지 : 부엩이골 사밭뱅이 북쪽을 막은 간척지. 탄봉에 이어서 만들었다. 1980년대에 개인이 막았다고 한다.
- 신간사지 : 장은리 서쪽에 있는 간척지.
- 신침지골 : 봉굴고랑 안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회터굴과 작은골 사이에 있다. 큰골이라고도 한다. 1가구가 거주한다.
- 아가굴 : 멩이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도랫말골과 유두께고랑 사이에 있다.
- 아래뜸 : 무시점 마을의 남쪽 부분.
- 아래뜸 : 밀과실의 북쪽 부분.
- 아랫관쟁이 : 관쟁이의 당미고랑 북쪽 부분.
- 아랫부엩이 : 장은리 북쪽에 있는 부엩이의 중심 마을.
- 아포동(牙浦洞) : 앓재 마을의 한자 표기.
- 안골 : 밀과실 위뜸 남쪽에 있는 두 골짜기 중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안골 : 용굴 마을(큰수문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안산 : 동이점 마을 남쪽에 있는 산.
- 앓재 : 오망굴과 밀과실 사이에 있는 골짜기 입구 마을. 아포동이라고도 한다.
- 앓재앞피덤장 : 오망굴 북서쪽에 치던 고기잡이 그물.
- 어텡이 : 밀과실과 만석굴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 어텡이고랑의 북쪽에 있으며 마을 앞에 반달 모양의 옛 간척지가 있다.
- 어텡이고개 : 만석굴 안 한티고랑에서 어텡이고랑으로 통하는 고개.
- 어텡이고랑 : 어텡이 마을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밀과실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어망동(漁網洞) : 어망굴의 한자식 표기. 근래 부르는 이름이다.
- 어서리 : 오망굴의 다른 이름.
- 어정굴 : 앓재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염밭 : 장은리 서쪽 새로운 간척지 제방 안의 북쪽 부분. 간척지 축조 이전에 소금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 오망굴 : 장은리 서북쪽 끝에 있는 마을. 간척지 제방 밖에 있는 마을이다.
- 용굴 : 구간사지 둑(원뚝) 밖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모두 논으로 개간되었고 골짜기 꼭대기에 마을이 있다.
- 용굴 : 용굴 안에 있는 마을. 큰숨은개라고도 한다.
- 용굴고랑 : 끝도로 고개 북쪽에서 동쪽으로 향한 작은 골짜기. 옛날에 초빈을 했었

다고 전한다.

- 용천이굴 : 오망굴에서 동남쪽으로 뺀 골짜기. 살마짜의 남서쪽이다.
- 원뚝 : 장은리 마을 가운데 있는 구간사지의 둑. 1960년대 초 간이 철길을 놓고 마을 주민들이 자력으로 막았다고 한다. 간척사업 이전에 돌을 놓고 건너다니던 곳이다.
- 위뜸 : 무시점의 북쪽 부분.
- 위뜸 : 밀파실의 남쪽 부분.
- 위뜸 : 진구지 마을의 남동쪽 부분.
- 위치 : 수문재굴 간척지 제방과 함박굴 사이에 있는 해안이다. 앞 바다에 굴 양식을 하며 근래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굴구이를 판매하였으나 홍보지구 간척사업으로 내륙이 되었다.
- 윗관쟁이 : 관쟁이의 꾀낭굴고개 남쪽 부분.
- 윗부engi : 부engi골의 남쪽 끝에 있는 마을.
- 유두계 : 신간사지 북쪽에 있는 산의 끝. 염밭과 끝도로 사이에 있다.
- 유두계고랑 : 맹이 마을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아가굴의 동쪽이다.
- 유두계고랑 : 용굴 입구에서 서북쪽으로 난 골짜기. 유두계의 동북쪽에 있다.
- 은포(隱浦) : 숨은개의 한자 표기.
- 은포동(隱浦洞) : 숨은개의 한자 표기.
- 인왕천 : 윗부engi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골 : 동이점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큰골의 동쪽에 있으며 무시점으로 통하는 도로가 지난다.
- 작은골 : 봉굴고랑 안에 있는 골짜기. 신침지골(큰골)의 동쪽에 있다.
- 작은평산 : 사쟁이재 서쪽에 있는 산. 높이 108.0m이다. 사호리와 경계를 이룬다.
- 작은한티고개 : 당미고랑 입구에서 봉굴고랑으로 넘어가는 고개. 토끼굴고개라고도 한다.
- 장고개 : 동이점 마을에서 나룻개로 통하는 고개. 옛날 결성장을 보러 다니던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 장고개 : 무시점 마을에서 나룻개로 통하던 고개.
- 장곶(長串) : 진구지의 한자 표기.
- 장곶리(長串里) : 진구지의 한자 표기.
- 장수구데기 : 무시점 마을 북쪽에 있는 구덩이. 장수가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
- 장파(長巴) : 1960년대 사호리 2구 (長巴, 水鐵) 중 1구
- 조북굴 : 장은리 서쪽 해안에 있는 골짜기. 느락굴과 숨은개골 사이에 있다. 논과

밭이 있다.

- 종지동(宗芝洞) : 동이점의 한자 표기.
- 종지동(宗芝洞,동지) : 동이점 <1911, 朝鮮地誌資料>
- 종지섬 : 동이점 마을 북쪽에 있는 작은 섬. 높이 9.9m이다.
- 작은어텡이고랑 : 어텡이고랑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두루봉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친구지 : 장은리의 서쪽 마을. 무시점의 남쪽에 있다.
- 짚은골 : 봉굴고랑 입구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
- 초분골 : 만석굴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옛날에 초빈을 했다고 전한다.
- 총대뿌리 : 봉굴고랑과 당미고랑 사이에 내민 산줄기의 끝.
- 큰골 : 동이점간사지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 큰골 : 봉굴고랑 안 신침지골의 다른 이름.
- 큰숨은개 : 용굴 안에 있는 마을.
- 큰평산 : 앓재 마을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173.9m이다. 사호리와 경계이다.
- 토끼굴고개 : 작은한티고개의 다른 이름.
- 통봉 : 맹이 마을 남쪽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 매실봉이라고도 한다.
- 퇴끼골 : 봉굴고랑 안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 파래굴 : 한티고개 동쪽 바로 밑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즉 봉굴 꼭대기 회터굴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 하달티고랑 : 친구지 마을에서 삼개로 통하는 삼포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
- 한티고개 : 봉굴고랑에서 사호리 늘문이골로 통하는 큰 고개.
- 한티고랑 : 만석굴의 안쪽 골짜기.
- 한티샘 : 만석굴 남쪽 한티고랑 위에 있는 샘. 어텡이고개 밑에 있다.
- 함박굴 : 만석굴 안에서 남동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
- 함박굴 : 숨은개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주민이 거주하는 골짜기로, 골짜기 입구에 부채같은 간척지를 만들었다. 30여 년 전에 제방을 축조하였다고 한다.
- 회터굴 : 봉굴 안 한티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
- 후리치굴 : 오망굴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사쟁이로 넘어가는 사쟁이고개가 통한다.
- 훗내막굴산 : 오망굴 서남쪽에 있는 산. 사호리와의 경계이다. 삼각점이 있다. 높이 100.3m이다.
- 흥룡봉(興龍峯) : 봉화산? <1911, 朝鮮地誌資料>



숨은개 굴양식장(1996)



간척지(2008)



숨은개 굴단지(1996)



장은리 포구(2008)

7. 하만리(河滿里)

본래 홍주군(洪州郡)의 지역으로서 낙동(洛東)이라 하였는데, 고종 광무 5년(1901)에 오천군(鰲川郡) 천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하궁리(下宮里), 종평동(宗坪洞), 주향동(酒缸洞), 동산동(東山洞), 동음동(冬音洞), 두만동(斗滿洞), 원동(院洞), 화곡동(禾谷洞) 일부를 병합하여 하궁(下宮)과 두만(斗滿)의 이름을 따서 하만리(下滿里)라 하여 보령군 천북면에 편입하였다.

- 가는골 : 세집매와 원두굴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 가장굴 : 모새굴과 새집매 사이에 있는 골짜기. 남쪽으로 열린 골짜기이다.
큰가장굴과 작은가장굴이 있다.
- 간사지 : 닷마지기고랑 앞에 있는 간척지.
- 건너뜸 : 대궁 마을 안에서 서로 다른 골짜기 마을을 부르는 이름.
- 고망굴 : 하만리 남쪽에 있는 마을. 사거리와 섬바래기 마을 사이에 있다.

- 고망굴방죽 : 고망굴 마을 안에 있는 저수지. 새 도로가 방죽 가운데로 지난다.
- 골밭고랑 : 안두룽개 살고지고랑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곱새굴 : 하만리 북쪽 밤까시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
- 공동묘지고개 : 한궁 억더굴에서 공동묘지를 통하여 장은리 맵이로 넘어가는 고개.
- 괴린장 : 섬바래기 동남쪽 산. 즉, 막끝이의 서쪽 산이다. 백제 고분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구간사지 : 안두룽개 마을 서남쪽에 있는 간척지.
- 금반향 : 두망굴과 섬바래기 사이의 산줄기. 풍수지리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까치섬 : 닷마지기고랑 동쪽 섬. 이 섬을 중심으로 간척지를 축조하였다.
- 나룻개 : 하만리 남쪽 끝에 있던 옛 나루터. 오천으로 통하던 나루터이다. 수영나루라고도 부른다. 1994년까지는 정부 보조로 오천까지 배가 다녔으나 현재는 다니지 않는다.
- 나룻집 : 수영나루에 있는 집.
- 느무고개 : 한궁 중심 마을과 천북중학교 사이에 있는 언덕, 즉 천북초등학교 앞 고개를 말한다. 천북초등학교 자리에 큰 묘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천북초등학교 앞 마을을 지칭하기도 한다.
- 능고개 : 느무고개의 다른 이름.
- 능치(陵峙) : 느무고개의 한자 표기.
- 담안 : 한궁의 남쪽 마을. 현 면사무소가 있는 마을이다.
- 닷마지기고랑 : 하만리 남쪽 끝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 가옥이 2채 있고 근래에 주유소도 들어서 있다. 논이 닷마지기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당미고개 : 작골에서 장은리 당미로 넘어가는 고개.
- 당채고개 : 용오굴에서 장은리 당미로 넘어가는 고개. 고개의 서쪽 산봉우리(51.0m)에 당집이 있었다. 당집 자리에 기와가 출토되고 있을 뿐 마을 사람들은 당채 지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 대궁 : 하만리 중앙에 있는 마을. 한궁의 남쪽이고 원두굴의 서쪽이다. 마을 안에 골짜기가 2개인데 서로 건너뜀이라고 부른다. 선조 임금의 아버지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을 제사 지내던 곳을 대왕사친궁(大王私親宮)이라고 하였으므로 천북 지역의 목장이 폐지된 후, 이 지역의 토지가 대왕사친궁의 제사 비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대궁골 : 대궁 마을 앞 골짜기.

- 동미 : 동미(산) 동쪽에 있는 마을.
- 동미 : 세집매 동쪽에 있는 산. 높이 36.2m이다.
- 동미고개 : 대궁골에서 동미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동산(東山) : 동미 마을의 한자 표기
- 동산동(東山洞) : 동미 마을의 한자 표기.
- 동음동(冬音洞, 두룽기) : 두룽개. <1911, 朝鮮地誌資料>
- 똥편 : 한궁 중심 마을의 동쪽 부분. 서편과 대비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 두룽개 : 하만리의 남동쪽에 있는 마을. 안두룽개와 밧두룽개로 구분된다.
- 두른섬 : 두룽개 마을 남쪽에 있는 섬. 이 섬과 혼모래, 막끝이를 이어 간척지를 축조하였다.
- 두만동(斗滿洞) : 고망굴 동쪽에 있는 마을.
- 뒤뜰 : 한궁 양지뜸 서쪽에 있는 마을. 모새굴의 동쪽 부분이다.
- 뒷굴 : 밧두룽개 위에서 북서쪽으로 향한 골짜기. 사거리로 통한다.
- 땅굴 : 원두굴 안에서 서남쪽으로 난 골짜기.
- 마랫들 : 마랫들 마을과 삼거리고개 사이에 있는 들. 낙동리 수랑치기와 연결되는 들이다.
- 마랫들 : 한궁 담안 남쪽에 있는 마을.
- 마무리간사지 : 두룽개 마을 남쪽에 최근 막은 간척지. 원래 45정이었으나 경지정리로 29정이 되었다고 한다.
- 막끝이 : 섬바래기 마을의 남동쪽 끝 부분. 이곳과 두른섬을 이어 간척지 제방을 축조하였다. 남쪽에 일제시대 금방앗간이 있었다. 이곳에 있는 마을을 지칭하기도 한다.
- 만리광산 : 원두굴과 고망굴에 걸쳐있던 일제시대 금광.
- 멩이고개 : 밤까시고개의 다른 이름. 하만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모새굴 : 한궁 양지뜸 서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 육굴 마을과 뒤뜰 마을이 있다.
- 목부러진고랑 : 원두굴 남쪽 끝에 있는 골짜기.
- 밤까시고개 : 하만리 북쪽 끝에 있는 고개. 곰새굴의 끝에 있으며 장은리와 경계를 이룬다.
- 밧두룽개 : 두룽개 마을의 서쪽 부분. 사거리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와 그 안에 있는 마을을 통칭한다.
- 밧두룽개고랑 : 밧두룽개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벗날 : 사거리고랑과 밧두룽개골 사이에 있는 산줄기의 끝.

- 벗너머 : 밧두룽개 남쪽 들. 간척사업 이전에 소금을 구워 붙여진 이름이다.
- 벗넘어 : 안두룽개 마을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앞에 옛 간척지가 있다.
- 병풍바위 : 하만리 남쪽 끝, 닷마지기고랑 서쪽에 있는 바위.
- 불무굴 : 작골 입구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사거리 : 삼거리고개 남쪽에 있는 사거리 마을.
- 사거리고랑 : 사거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사거리와 고망굴 사이에 있다.
- 살고지고랑 : 안두룽개 북쪽 살고지재 밑에 있는 골짜기.
- 살고지재 : 밧두룽개 샘골에서 낙동리 살고지고랑으로 넘어가는 고개.
- 살고지재 : 안두룽개 북쪽에서 낙동리 산고지고랑으로 넘어가는 고개.
- 삼거리고개 : 하만리 면사무소 남쪽에서 학성리, 나룻개 쪽으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있는 고개.
- 새간사지 : 마무리 간사지의 다른 이름.
- 새간사지저수지 : 두만동 남쪽에 있는 저수지.
- 새뜰 : 하만리 중앙을 통과하여 사호리 남쪽으로 흐르는 내.
- 새뜸 : 한궁 양지뜸의 북쪽 부분.
- 새벗말랭이 : 고망굴에서 두룽개로 넘어가는 낮은 언덕.
- 샘골 : 닷마지기고랑 남쪽에 있는 골짜기. 현재는 식당 가옥 1채가 들어서 있다.
- 샘골 : 밧두룽개 안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서낭댕이 : 섬바래기 큰고랑에서 닷마지기고랑으로 통하는 언덕 위에 있었다. 돌무더기가 있었고 신수로는 맹감나무, 쫄레나무가 있었다. 오천으로 통하는 도로가 건설되어 없어졌다.
- 서편 : 한궁 중심 마을의 서쪽 부분이다. 즉, 장은리 방면 도로의 동쪽 부분이다. 반대쪽 마을을 뒥편이라고 부른다.
- 세집매 : 하만리 서쪽, 사호리 벅개와의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 원래는 하천 서쪽에 집이 3채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현재는 하천 서쪽, 동쪽에 있는 마을을 통칭한다. 하천의 동쪽에 있는 마을은 근래 생겼다.
- 속뜸 : 한궁 양지뜸의 아래뜸 북쪽 부분. 마을의 한가운데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수명통 : 두만동 남쪽, 옛 간척지의 수문.
- 수영나루 : 하만리 남쪽 끝에 있던 옛 나루터. 오천 수영으로 통하던 나루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시름장골 : 하만리 동쪽 끝에 있는 골짜기. 옛날 씨름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천북목장이 들어서 요즈음은 천북목장이라고 부른다.

- 아래뜸 : 한궁 양지뜸의 남쪽 부분.
- 안두룽개 : 두룽개 마을의 동쪽 부분.
- 양어장 : 닷마지기 고랑 앞에 막은 간척지. 과거 양어장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홍보지구 농업개발사업 제방공사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 까치섬을 중심으로 삼각형으로 축조한 간척지이다.
- 양지뜸 : 한궁의 동쪽 부분. 동향으로 양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회나무 정자나무가 있다.
- 양편(陽便) : 1960년대 하만 2구(河宮, 陽便) 중 1구.
- 억더굴 : 한궁 뒥편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공동묘지의 남쪽에 있다.
- 왜솔밭 : 하만리 원두굴의 서쪽 끝 부분. 일제 시대 왜솔(해송)을 심어 붙여진 이름이다. 학성리와의 경계 지역이다.
- 용암진(龍岩津) : 오천면 소성리와 통하던 나루. <1911, 朝鮮地誌資料>
- 용오굴 : 작골 안쪽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와 그 안에 있는 마을.
- 옥굴 : 모새굴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 마을이 있는 골짜기를 말하기도 한다.
- 옥굴고개 : 모새굴 안 옥굴에서 사호리 절굴로 넘어가는 고개.
- 움터굴 : 섬바래기 서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을 통하여 학성리 오랑개골(호동골)로 넘어간다.
- 원덕굴 : 원두굴의 다른 이름.
- 원두굴 : 하만리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학성리로 통하는 도로가 지난다.
- 원두굴 : 하만리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 원두굴고개 : 고망굴 잔다랭이고랑에서 원두굴로 넘어가는 고개.
- 원뚝 : 마무리 간사지의 뚝.
- 입낙골 : 밧두룽개와 안두룽개 사이에 있는 논. 옛 간척지이다.
- 작골 : 하만리 북서쪽 끝에 있는 골짜기.
- 작골방죽 : 작골 안에 있던 방죽으로 현재는 논으로 이용된다.
- 작골 : 작골 안에 있는 마을.
- 작현리(鵲峴洞, 작현리) : 작골. <1911, 朝鮮地誌資料>
- 잔다랭이고랑 : 고망굴 서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 논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잣마당 : 한궁 양지뜸에서 모새굴로 넘어가는 낮은 언덕.
- 종평(宗坪) : 마랫들의 한자 표기.

- 종평동(宗坪洞) : 마랫들의 한자 표기.
- 작은가장굴 : 큰가장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지미날 : 대궁 마을 안에 있는 두 골짜기 사이에 내민 산줄기의 끝. 조그만 봉우리가 나와 있다.
- 차돌백이 : 하만리 동쪽 끝, 낙동리와의 경계 지역. 포장도로가 지난다. 차돌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 천북목장 : 하만리 동쪽 끝 골짜기에 있는 목장. 원래는 씨름장이라고 불렸으나 요즘은 천북목장으로 불린다.
- 큰가장굴 : 세집매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 가장굴의 서쪽이다. 골짜기 안이 밭으로 이용된다.
- 큰고랑 : 섬바래기 마을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오천으로 통하는 포장도로가 지난다.
- 하궁(河宮) : 1960년대 하만 2구(河宮, 陽便) 중 1구.
- 하궁(河宮) : 한궁의 다른 이름. 요즘은 하궁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천북 지역의 목장이 폐지된 후, 조선 14대 선조 임금의 생가 형 하원군(河原君, 덕흥대원군의 장자)의 토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하궁리(河宮里, 한궁) : 한궁. <1911, 朝鮮地誌資料>
- 하궁리평(河宮里坪) : 마랫들 <1911, 朝鮮地誌資料>
- 학도(鶴島) : 두름섬의 한자 표기.
- 학성리고개 : 원두굴에서 학성리 중남굴로 넘어가는 고개.
- 학포(鶴浦) : 두룽개의 한자 표기.
- 한궁 : 천북면의 중심 마을이다. 면사무소, 지서,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기관이 위치한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한궁이라고 부르고 일부 사람들이 하궁이라고 부른다.
- 한운여사기념비 : 느무고개에 있다. 항일운동가 김상덕의 부인이고, 일제시대 광천 화신상회 주인이던 한운 여사는 교실 2칸을 지어 기증하여 학교를 만들었다. 이 학교가 천북초등학교의 전신이다.
- 할닥고개 : 작굴과 사호리 심바굴 사이에 있는 고개.
- 호동고개 : 섬바래기 움터굴에서 학성리 오랭캐골(호동)로 넘어가는 고개.
- 호동고개 : 원두굴 목부러진고랑에서 학성리 오랭캐골(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흥애뿌리 : 원두굴과 땅굴 사이에 내민 산줄기의 끝.
- 혼모래 : 안두룽개 벗어나며 동남쪽 산줄기의 끝. 이곳과 두른섬을 이어 마무리간사지의 독을 축조하였다.



하만리 원경(2008)



batdurengae cheongjuhan sai chaisil(2008)

8. 학성리(鶴城里)

본래 홍주군 지역인데, 1901년 오천군 천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염성리(鹽城里), 중랑리(中郎里), 오학동(五鶴洞), 오룡동(五龍洞), 혜독동(惠篤洞), 호변동(湖邊洞), 율도동(栗島洞)을 병합하여 오학(五鶴)과 염성(鹽城)의 이름을 따서 학성리라 하여 천북면에 편입하였다.

- 가는골 : 오애미 북쪽 새낙굴과 뱀미실 사이에 있는 골짜기.
- 간사지 : 염생이 마을 남쪽에 있는 간척지이다. 학성저수지에서 물을 낸다.
- 간사지 : 젓떼기 마을 서쪽에 있는 간척지.
- 감낭굴 : 학성리 서남쪽, 벗골과 진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마을.
- 개건너 : 학성리 북쪽 해안. 사호리 쪽에서 보아 바다 건너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통개 간척지 제방과 농놀음골 사이에 있다.
- 갱지골 : 젓떼기 술등 동쪽에 있는 골짜기.
- 거명배 : 학성리 맨아박굴과 밤섬 사이에 있는 조그만 옛 섬이다. 크고 넓직한 바위이고 앞에 취락이 들어서 있다.
- 고개 : 맨아박굴 동북쪽 언덕. 밤섬, 염생이, 하만리, 호동굴로 통하는 4거리이다.
- 광산골 : 맨아박굴 골짜기 안에서 동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
- 구봉산 : 맨아박굴과 오랑캐굴 사이에 있는 산. 높이 116.9m이다.
- 구주굴고랑 : 중낭굴 남쪽에서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 안산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글마까티 : 맨아박굴고랑 남쪽 끝을 부르는 이름. 이곳과 밤섬을 연결하는 제방을 축조하여 면화동염전을 축조하였다.

- 금반향산 : 염생이 마을 서북쪽에 있는 낮은 산. 높이 26.1m이다. 꼭대기에 삼각점이 있다. 풍수지리와 관련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농놀음골 : 학성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사호리 작은 통개의 맞은쪽이다.
- 담배밭고랑 : 첫떼기 술등 마을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불근어덕의 남쪽이다. 모두 밭으로 개간되었다.
- 담배밭골 : 오랑캐굴(호동굴) 동북쪽 끝에 있는 골짜기. 상당한 높이까지 논·밭으로 이용된다.
- 당금이 : 염생이 아래뜸 남서쪽 끝 부분.
- 당달궁뿌리 : 진골과 대숙구지 사이의 산이 회변쪽으로 가늘고 길게 내밀었는데, 바닷가에 내민 가는 산줄기를 부르는 이름이다.
- 당뿌리 : 회변 서남쪽 끝에서부터 연결되어 나온 사취의 끝을 부르던 이름. 이곳과 질목시를 연결하는 제방을 축조하여 양어장을 만들었다.
- 당산 : 밤섬의 서쪽 부분에 있는 산. 당제를 지내던 곳이다. 당집은 없고 음력 정월 열나흘에 밤섬 사람들이 제를 지낸다.
- 당산 : 염생이 북쪽에 있는 산으로, 당제를 지내던 곳이다. 옛날 당제를 지낼 때 산(産)달이 된 여자는 다른 마을로 보냈다고 전한다.
- 당산 : 첫떼기 마을 서남쪽 해안에 있는 산. 첫떼기 벚골, 진골 마을에서 위하던 당산이다. 신수로는 소나무가 있고 1970년대부터 지내지 않는다. 정월 보름 안에 택일 해서 제를 지냈다.
- 대숙구지 : 학성리 진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진골과 절계 사이에 있다.
- 대주원(待舟院) : 천북면 학성리 원굴. 한산사가 있던 골짜기의 동쪽 골짜기이다. 항상 배를 대기시켜 놓은 원이기 때문에 대주원이라고 불린 것으로 보인다. 1911년 현재는 원이 폐지되고 나룻사공을 시켜 원지기를 삼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도 원굴이라는 지명이 살아 있다. <1911, 朝鮮地誌資料>
- 도둑놈굴 : 학성리 서남쪽 샘도리와 서구나무굴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땅골 : 중낭굴 마을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맨삼주섬 : 맨삼지의 다른 이름(지도에 표기 됨)
- 맨삼지 : 염생이 아래뜸 서쪽에 있는 작은 섬. 높이 18.5m이다. 만조 때만 섬이 된다. 윤 씨네의 종중산으로 10여 기의 묘가 있다.
- 맨아박굴 : 맨아박굴 마을 위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맨아박굴 : 학성국민학교 주변과 동쪽 마을을 통칭한다. 원래 맨아박굴은 학성초등학교 동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골짜기였으나 학교 주변에 취락이 생기면서 모두

맨아박굴로 불리게 되었다. 위뜸, 아래뜸, 고개로 나누어진다.

- 맨아박굴고개 : 오랑캐굴(호동굴)에서 맨아박굴로 넘어가는 고개.
- 맨아박굴저수지 : 맨아박굴 동남쪽에 있는 저수지.
- 면전(棉田) : 맨아박굴의 한자 표기.
- 면화동(棉花洞) : 맨아박굴의 다른 이름.
- 면화동염전 : 맨아박굴 남쪽에 있는 염전.
- 면화밭굴 : 맨아박굴의 다른 이름.
- 모새굴 : 중낭굴과 원두굴고개 사이에서 북서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 원두굴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다.
- 밤섬 : 맨아박굴 서남쪽 끝에 있는 섬.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되었다.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으며 여러 주민이 거주한다.
- 밭고랑 : 오랑캐굴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서낭댕이골의 서남쪽이다.
- 뱀미실 : 사호리 통개 간척지 제방 남쪽에서 동쪽으로 향한 골짜기.
- 버러지바위 : 염생이 아래뜸 서쪽 해안에 있는 바위. 맨삼지 옆에 있다.
- 벌밭 : 학성리 맨아박굴 고개와 중낭굴 사이에 있는 마을. 중낭굴에 속하여 중낭굴 아래뜸으로도 불린다.
- 벗골 : 젓떼기 마을 서남쪽, 작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벗골의 서쪽이다.
- 북골 : 중낭굴 위뜸 서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골짜기.
- 북굴고개 : 중낭굴 북굴에서 사호리 간척지 쪽으로 넘는 고개.
- 산골 : 젓떼기 윗말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 골짜기 안에 넓은 평지가 있다.
- 삼박굴 : 염생이와 중낭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염생이 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의 대부분은 논으로 개간되었다.
- 새낙골 : 뱀미실과 오애미 마을 사이에 있는 큰 골짜기. 골짜기 입구는 제방을 축조하여 간척하였다. 모두 논으로 이용된다.
- 새뿌리 : 밤섬의 동남쪽 끝. 이곳과 불근언덕을 연결하여 간척지 제방을 만들었다.
- 샘금말 : 염생이 중앙에 위치한 마을.
- 샘도러 : 학성리의 서남쪽 끝. 도둑놈굴과 회변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서구나무골 : 학성리의 서쪽, 벗골과 도둑놈굴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바다쪽으로 열려 있다.
- 서낭댕이 : 맨아박굴 위뜸에서 고개로 가는 길에 있었다.
- 서낭댕이 : 벗골에서 서구나무골로 넘어가는 언덕 위에 있다. 회변으로 통하는 옛 길인데 현재는 다니지 않는다. 신수로는 소나무가 있었고 돌무더기도 있었다.

- 서낭댕이 : 오랑캐굴(호동굴) 서낭댕이골에서 하만리로 넘어가는 고개 꼭대기에 있다. 소나무와 가나무가 신수였다고 한다.
- 서낭댕이골 : 오랑캐굴 꼭대기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서낭댕이의 밑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섬바굴 : 오랑캐굴(호동굴) 서남쪽, 신간사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 불근어덕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소금논 : 술등 마을 동북쪽에 있는 논. 간척사업 이전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술등 : 첫떼기의 중심 마을. 도로가 지나는 마을이다. 간척사업 이전에는 작은 자갈로 된 해안이었다. 보령 지방에서는 해안 사주·사취를 술등이라고 부른다.
- 솟독굴 : 오랑캐굴(호동굴)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인안당고랑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솟독골 : 첫떼기 윗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일제 시대에 금광(확성 광산)이 있던 곳이다. 솟돌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 솟고랑 : 중낭골 서쪽에 있는 북골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골짜기. 입구에 청목목장이 있다.
- 신간사지 : 호동굴 남쪽에 있는 간척지. 밤섬 새뿌리와 첫떼기 불근어덕 사이에 제방을 축조하였다. 원래 미국 잉여농산물원조사업(480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개인이 완성하였다고 한다.
- 아래뜸 : 염생이 마을의 서남쪽 부분.
- 아래뜸 : 중낭굴 중심 마을의 남쪽에 있는 마을. 맨아박굴 고개의 북쪽에 있다. 도정공장과 창고가 있으며, 벌밭으로도 불린다.
- 아래뜸: 학성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마을.
- 아랫말: 첫떼기 마을 서남쪽, 간척지 동남쪽에 한줄로 들어선 마을.
- 안굴 : 염생이 마을의 북쪽 부분. 염생이 중심 마을의 언덕 너머에 있다.
- 안산 : 중낭굴 남쪽에 있는 산. 높이 73.0m이다.
- 앞장벌 : 염생이 마을 서북쪽에 있는 백사장.
- 염생이 : 학성리 서쪽에 있는 큰 마을. 위뜸, 샘금말, 아래뜸, 안굴로 구분된다.
- 염성(鹽城) : 염생이의 한자 표기.
- 오랑캐굴 : 맨아박굴과 첫떼기 사이에 있는 큰 골짜기. 요즈음은 호동굴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원래는 오랑캐굴이다. 전설에 의하면 임진왜란 후 중국 배가 오천 앞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여 이곳에 자리를 잡고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후에도 중국배들이 들어오면 이곳에 묵었는데 중국인들이 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오룡동(五龍洞) : 중남굴 남쪽에 있는 마을.
- 오애미 : 학성리의 북서쪽 끝에 있는 마을. 작은 마을이다. 마을에 종묘를 생산하는 양어장이 있다.
- 오애미고개 : 염생이 마을에서 오애미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오학동(五鶴洞) : 오애미의 한자 표기.
- 원골 : 학성리 남동쪽 끝에 있는 골짜기이다. 간척사업으로 많은 논이 조성되었다. 오천항의 맞은쪽이다.
- 원동(院洞) : 천북면 학성리 ‘원골’ 대주원이 있던 곳으로 보인다. <1911, 朝鮮地誌資料>
- 원두굴고개 : 맨아박굴 골짜기에서 중남굴고랑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 고개를 넘고 다시 원두굴 고개를 넘어 원두굴로 가기 때문에 원두굴고개라고 부른다.
- 원두굴고개 : 학성리 중남굴과 하만리 사이에 있는 고개. 포장도로가 지난다. 하만리에서는 학성리고개라고 부른다.
- 원두굴재 : 모새굴에서 원두굴로 넘어가는 재.
- 원두굴재 : 중남굴 땅골에서 하만리 원두굴로 넘어가는 재.
- 위뜸 : 맨아박굴 동쪽 골짜기. 입구에 있는 마을. 원래의 맨아박굴이다.
- 위뜸 : 염생이 마을의 동북쪽 부분. 학성저수지 북쪽이다.
- 위산등골 : 젓떼기 윗말 산골 안에서 북쪽으로 뻗은 골짜기.
- 윗말 : 젓떼기의 위쪽에 있는 마을.
- 윗말등생이 : 염생이 위뜸과 아래뜸 사이의 언덕.
- 율도(栗島) : 밤섬의 한자 표기.
- 율도동(栗島洞) : 밤섬의 한자 표기.
- 응달 : 원두굴고개 서남쪽에 있는 산비탈. 그늘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근래에 돼지를 키우는 새마을목장이 들어서 있다.
- 인안당고랑 : 오랑캐골(호동굴)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숫독골과 큰대봉골 사이에 있다. 상당한 높이까지 논으로 개간되었다. 숫돌이 생산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작은원골 : 원골의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재뚝재골 : 젓떼기 윗말 산골 안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 재뚝재의 밑에 있다.
- 저뜨기 : 젓떼기의 다른 이름.
- 절굴 : 삼박굴과 중남굴 북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절이 있어서 절터와 기와 조각이 있다.
- 절계 : 학성리 남쪽 대숙구지와 원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입구에 작은

간척지가 있으나 아직 논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옛날 한산사(寒山寺)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첫떼기 : 학성리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말, 술동, 윗말로 구분된다.
- 중낭굴 : 학성리 북쪽 입구에 있는 마을. 위뜸, 벌밭,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 중낭굴 : 학성리 중앙에서 서남쪽으로 향해 뚫려있는 큰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칭하기도 한다.
- 중낭굴고랑 : 중낭굴의 동쪽 원두굴 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
- 중낭리(中郎里) : 중낭굴의 한자 표기.
- 지근여 : 오애미 마을 앞 바다에 있는 바위 너덜.
- 진골 : 첫떼기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남쪽 바다로 향한 긴 골짜기 안에 있다.
- 진골 : 진골 마을이 있는 긴 골짜기. 골짜기의 바다쪽 입구에 송어 양식장이 있다.
- 질목시 : 회변 당뿌리 맞은쪽에 내민 육지의 끝. 이곳과 당뿌리 사이에 50여 개의 제방을 축조하였다. 당달궁뿌리의 서쪽 끝이다.
- 차돌팍고랑 : 혜독저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
- 큰대봉굴 : 오랑캐굴 끝에서 동남쪽으로 향한 큰 골짜기.
- 큰왕굴고랑 : 중낭굴 동쪽 중낭굴고랑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안산고랑과 응달 사이에 있다.
- 한산사(寒山寺, 한산스) : 천북면 학성리. 한산사는 본래 황학루의 좌측 가까운 곳에 있었다. 과거 수군절도사영 시절에 적이 쳐들어 올 때 신호를 맡은 절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중국 소주의 한산사를 본따 붙여진 이름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한산사터(寒山寺) : 절계 골짜기의 서쪽 산기슭에 있다. 아직도 절자리는 평평하다. 이곳에서 불상이 출토되어 신고된 바 있다. 한산사는 옛 오천팔경의 하나로 손꼽혔다.
- 혜덕굴 : 첫떼기의 다른 이름.
- 혜독동(惠篤洞) : 혜덕굴의 한자 표기.
- 혜독동(惠篤洞, 첫독리) : 첫떼기 <1911, 朝鮮地誌資料>
- 혜독저수지 : 첫떼기 윗말 산골에 있는 저수지.
- 혜독치(惠篤峙, 첫독리지) : 천북면 학성리 첫떼기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호동(湖洞) : 오랑캐굴 안에 있는 마을. 오랑캐굴을 한자로 표기한 이름이다.
- 호동고개 : 맨아박굴에서 오랑캐굴(호동굴)로 넘어가는 고개. 호동굴에서는 맨아박굴 고개라고 한다.
- 호동굴 : 오랑캐굴이 있는 골짜기.

- 호변동(湖邊洞) : 천북면 학성리 ‘회변’ <1911, 朝鮮地誌資料>
- 호변동(湖邊洞) : 회변의 한자 표기.
- 황학루(黃鶴樓) : 천북면 학성리 황학루는 고소성 밖 서북간으로 강 건너 몇 리가량인데, 영보정 고소대와 서로 마주보며 한산사의 오른쪽이다. 누각의 이름은 역시 중국 무한의 황학루를 본 딴 것으로 보인다. <1911, 朝鮮地誌資料>
- 회변 : 학성리 서남쪽 끝에 있는 마을. 10여 년 전만 해도 2가구가 거주하였다. 요즘은 횃집, 양어장 등이 생겨 여러 가구가 거주한다. 마을 동쪽에 호수 같은 지형이 있었는데 양어장으로 변하였다.



밤섬(2003)



오애미(2003)

도움말 주신 분(1996년 현재)

박상원(40)	천북면	궁포리	581	김인배(69)	천북면	신덕리	210	덩검말
박문섭(68)	천북면	궁포리	496	김만재(62)	천북면	신덕리	291	큰말
장윤식(62)	천북면	궁포리	327	전태영(77)	천북면	신죽리	514	
이재호(47)	천북면	궁포리	89	편무성(72)	천북면	신죽리	401	
이경식(67)	천북면	낙동리	43	유재관(79)	천북면	신죽리	23	새말
황기태(70)	천북면	낙동리	45-2	김창규(60)	천북면	신죽리	646	말마지
박두환(56)	천북면	낙동리	526	최병철(53)	천북면	장은리	74	
최인돈(55)	천북면	낙동리	705	이기소(47)	천북면	장은리	364	둥이점
최진섭(63)	천북면	낙동리	909-1	이성준(70)	천북면	궁포리	435	오만이
장석현(68)	천북면	낙동리	빙도	정영철(67)	천북면	하만리	630	
조성운(47)	천북면	사호리	661-2	장인순(65)	천북면	하만리	878	
조남준(70)	천북면	사호리	614	홍성태(66)	천북면	하만리	83	
김영철(55)	천북면	사호리	756	이금동(77)	천북면	하만리	33	
조병열(62)	천북면	사호리	538	전명희(73)	천북면	하만리	937	
채홍양(84)	천북면	사호리	245	신세철(58)	천북면	학성리	280	맨아박굴
정용진(50)	천북면	사호리	510	박춘화(30)	천북면	학성리	36	호동
주병익(74)	천북면	사호리	302	전영배(50)	천북면	학성리	184	젓떼기
윤선순(80)	천북면	신덕리	26	한상윤(62)	천북면	학성리	467	